성도의 벗 10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0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벗 어린이란

성도의 벗

1988년 10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제임즈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암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69권, 제24권, 제10호
등 록 : 1967년 10일 5일, 라-3166
등록일 : 1988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10KO
Printed in Korea 10/88
©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 Send form 3579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000원 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관장단 메시지 :

2 **몰몬경**……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몰몬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 :

9 **나의 생활이 변경된 방식**……티에이치 지 바알맨

질의 응답 :

10 **다른 신앙을 지닌 선한 사람들**……조지 라이먼;
영적인 상처……앨렌 이 버긴

가족을 위한 지침서 :

14 **어린이와 예술**

19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함**……산드라 윌리엄즈

몰몬 경험 :

23 **해답을 찾음**……폴라 마이너

25 **엘리아의 영**……루이스 로베르토 데르티아노

27 **우리 신앙의 오아시스**……조셉 비 플랫

33 **아투어 카발로**……단 엘 씨얼

방문 교육 메시지 :

35 **"사랑은 간악함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란

36 **순결의 법**……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41 **죽음으로 친구를 잃음**……존 베티 피쉬

45 **우리는 그의 증인임**……왈도 피 콜 장로

48 **문장**……데비 블리스 포덤

어린이란

2 **기도**……조지 피 리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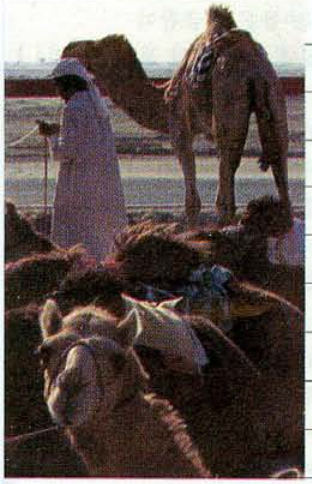
5 **신앙의 반석**……폴 알 겐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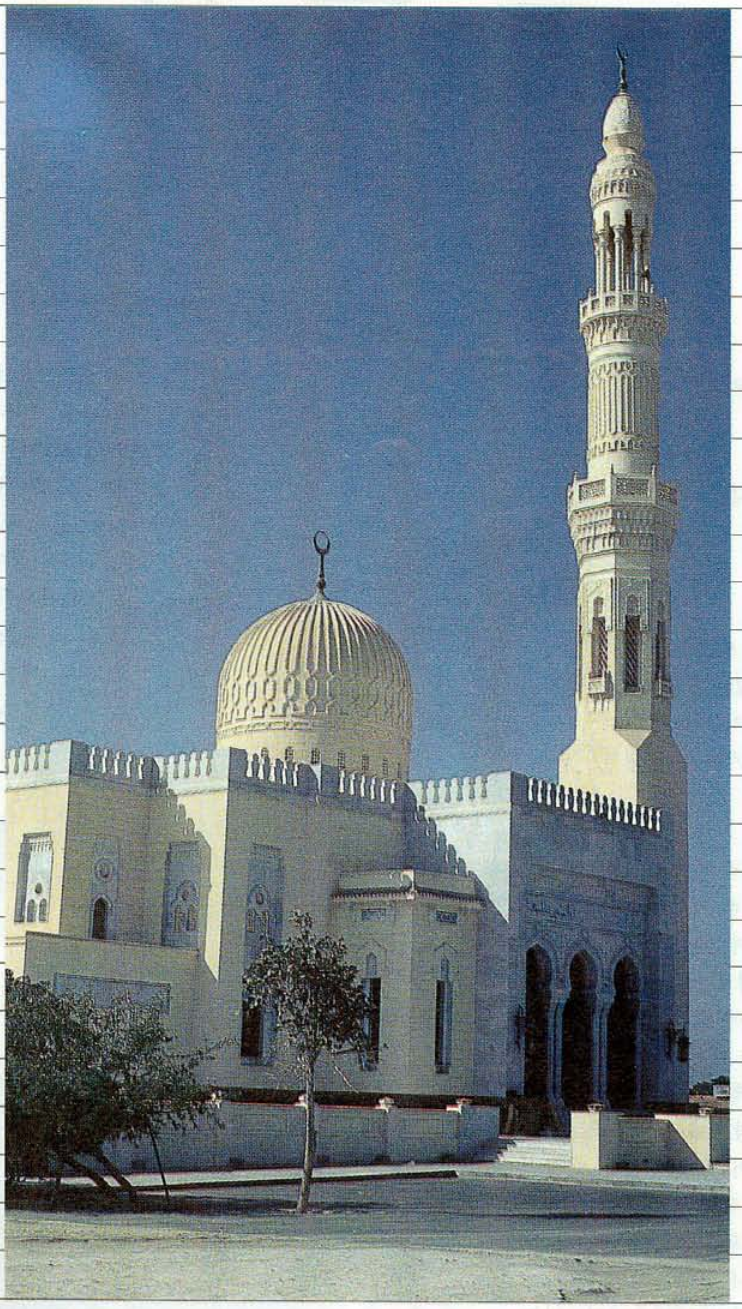
6 **야렛 형제**……트리시아 앤 윌리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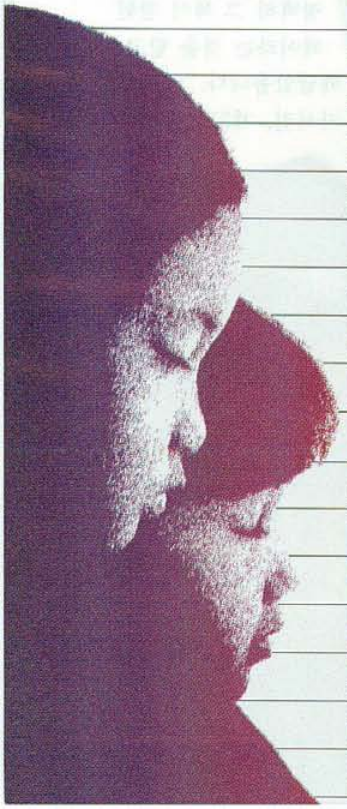
8 **종이 인형 :**
나이제리아에서 온 소년……쥰 앤 올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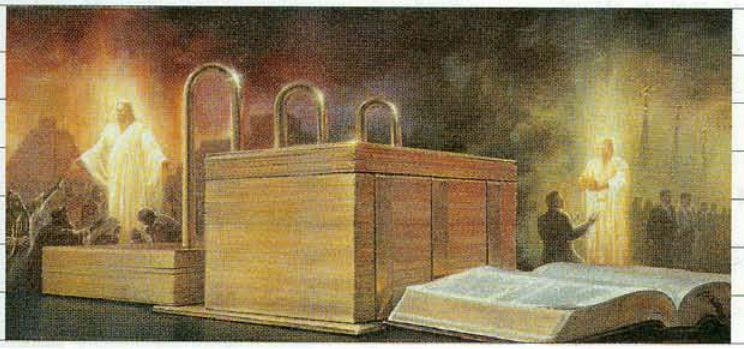
교회 및 지역 소식

표지 :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 보라".
미네르바 티쳐트 그림









대관장단 메시지

몰 몬 경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는 모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찬송가를 종종 부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100여 년 전에 팔리 피 프랫 형제가 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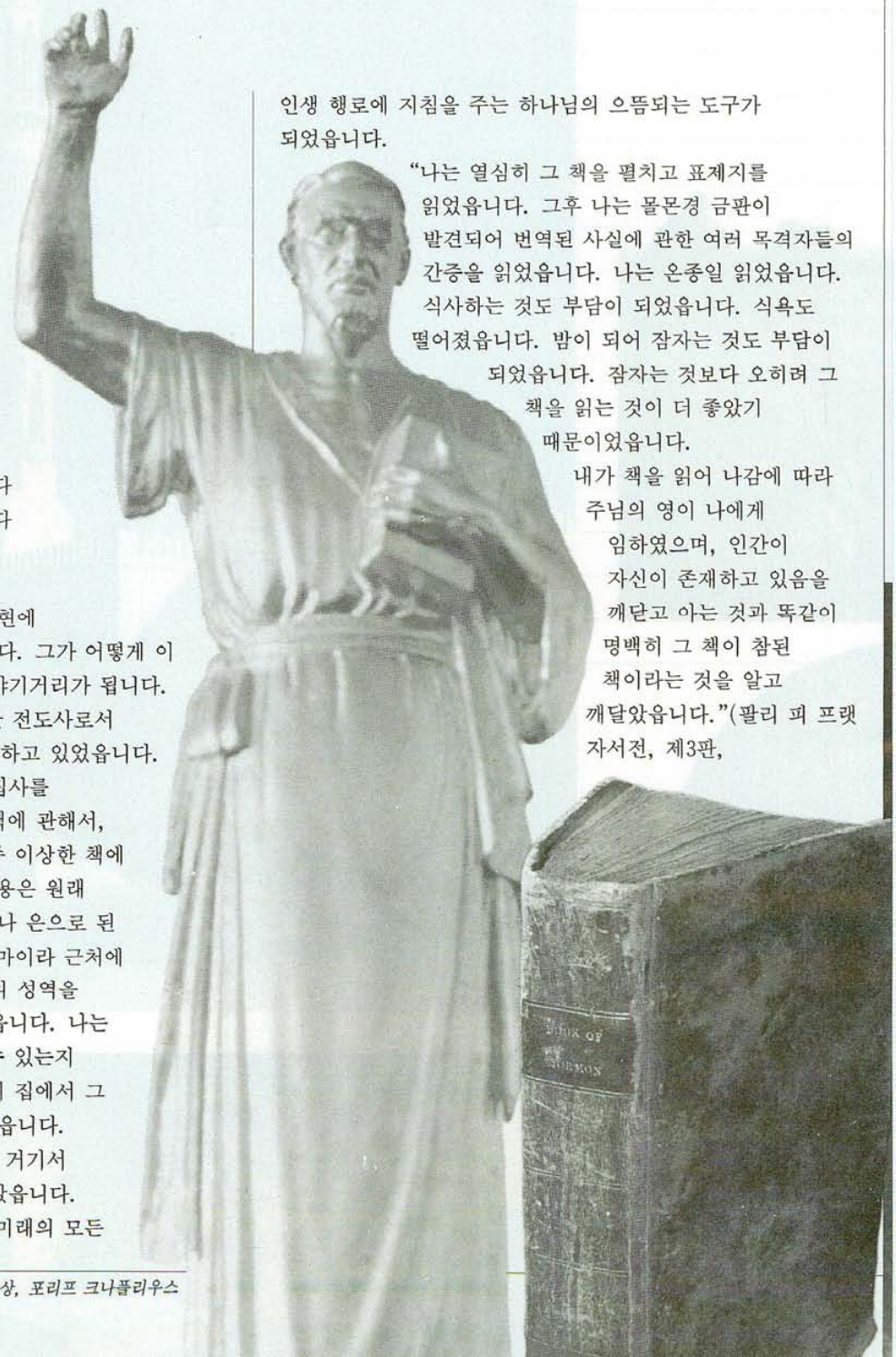
하늘에서 온 천사 오랜 침묵 깨고
저 은혜로운 말씀 하강하시었도다
쓸쓸한 구모라 산에 거룩한 기록 묻혔다
쓸쓸한 구모라 산에 거룩한 기록 묻혔다
(*찬송가*, 254장)

이 가사는 훌륭한 책의 기적적인 출현에 대한 것을 프랫 장로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가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1830년 8월에 파커 프랫 장로는 일반 전도사로서 오하이오주로부터 동부 뉴욕주로 여행하고 있었읍니다. 뉴워크에서 그는 햄린이라는 침례교 집사를 만났읍니다. 햄린씨는 그에게 "어떤 책에 관해서, 어떤 이상한 책에 관해서, 참으로 아주 이상한 책에 관해서" 말했읍니다. 그는 이 책의 내용은 원래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파에 의해 금이나 은으로 된 판에 기록되어 있었는 데 뉴욕주의 팔마이라 근처에 사는 어떤 젊은이가 시현이나 천사들의 성역을 통해 발견하고 번역한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어떻게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었읍니다. 그는 나에게 다음 날 그의 집에서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읍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하여 거기서 처음으로 나의 눈으로 '몰몬경'을 보았읍니다. 모든 책 중에서 뛰어난 이 책은 나의 미래의 모든 인생 행로에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으뜸되는 도구가 되었읍니다.

"나는 열심히 그 책을 펼치고 표제지를 읽었읍니다. 그후 나는 몰몬경 금판이 발견되어 번역된 사실에 관한 여러 목격자들의 간증을 읽었읍니다. 나는 온종일 읽었읍니다. 식사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읍니다. 식욕도 떨어졌읍니다. 밤이 되어 잠자는 것도 부담이 되었읍니다. 잠자는 것보다 오히려 그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었읍니다.

내가 책을 읽어 나감에 따라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며, 인간이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아는 것과 똑같이 명백히 그 책이 참된 책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읍니다."(팔리 피 프랫 자서전, 제3판,



천사 모로나이 상, 포리프 크나플리우스

솔트레이크 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38년, 36~37페이지)

그 당시 팔리 피 프랫 형제는 스물 세 살이었읍니다. 그는 몰몬경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므로 얼마 후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극히 유능하고 설득력 있는 교회의 대변인이 되었읍니다. 성역을 베풀면서 그는 미국의 방방곡곡으로 여행하였으며, 캐나다와 영국에 여행하기도 했읍니다. 그는 태평양 제도에서 주님의 사업의 길을 터 놓았으며, 남미의 대지에 발을 디딘 최초의 몰몬 장로였읍니다. 그는 1857년에 아칸소 주에서 선교 사업을 행하던 중 어떤 박해자의 총격을 받고 살해당했읍니다. 그는 아칸소 주의 앨마시 가까운 시골에 매장되었읍니다. 오늘날 조용한 그곳에는 광택이 나게 잘 닦여진 화강암 비석이 그의 묘소를 표시해 주고 있읍니다. 그 표면에는 예언이 담겨 있는 그의 훌륭한 찬송가의 가사가 새겨져 있었읍니다. 이 찬송가는 그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잘 알고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온 기 날린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 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아침 해 솟아오르네

거룩한 진리 빛 앞에
과오의 구름 사라지네
영광 멀리서 타오르나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이제 곧 빛 발하리라
(*찬송가*, 22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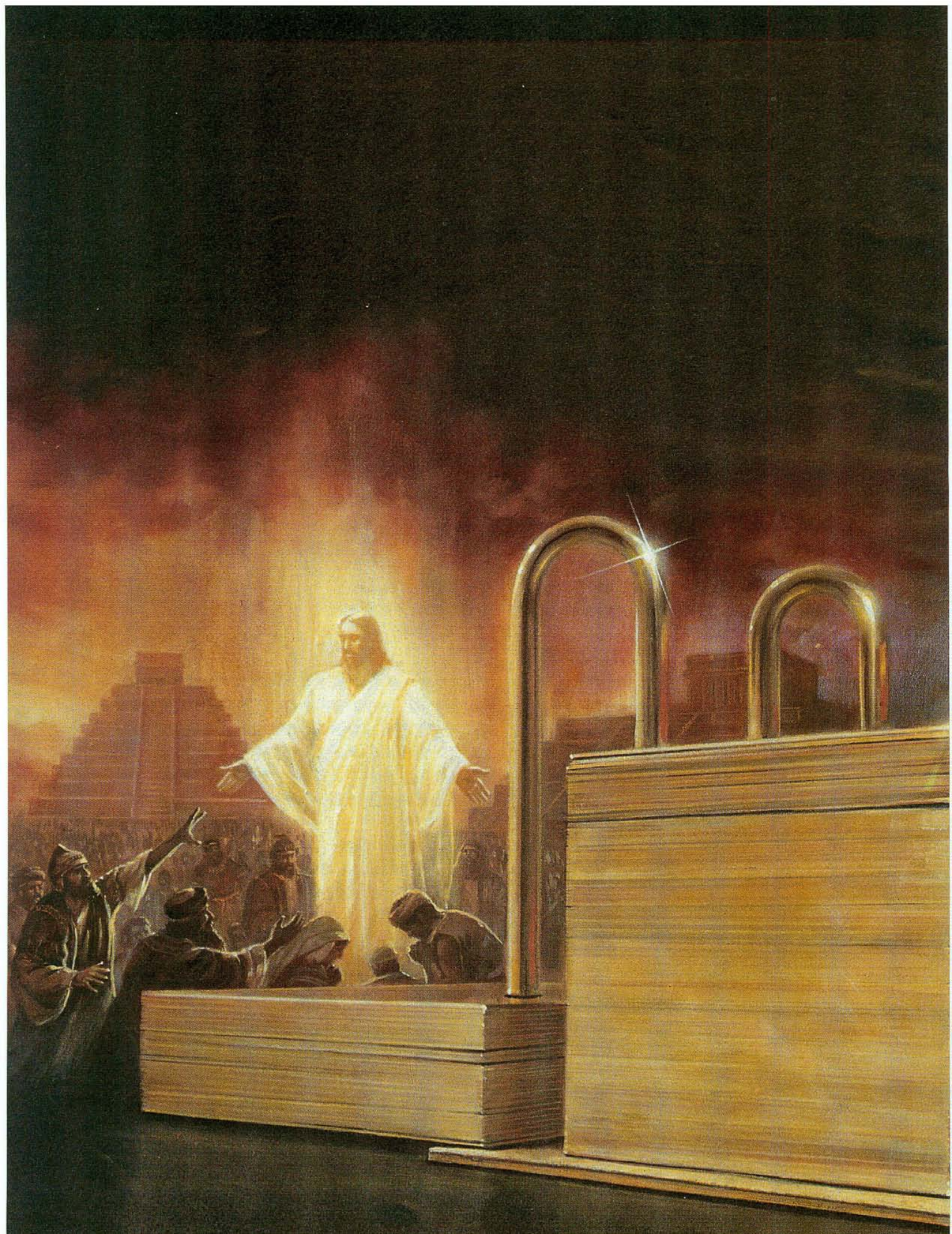
몰몬경에 관한 팔리 피 프랫 형제의 경험은 그만의 것이 아니었읍니다. 초판의 몰몬경이 널리 배부되어 읽혀짐에 따라 굳센 영성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읍니다. 그 후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이 훌륭한 책의 진리에 대한 간증 때문에 목숨을 버렸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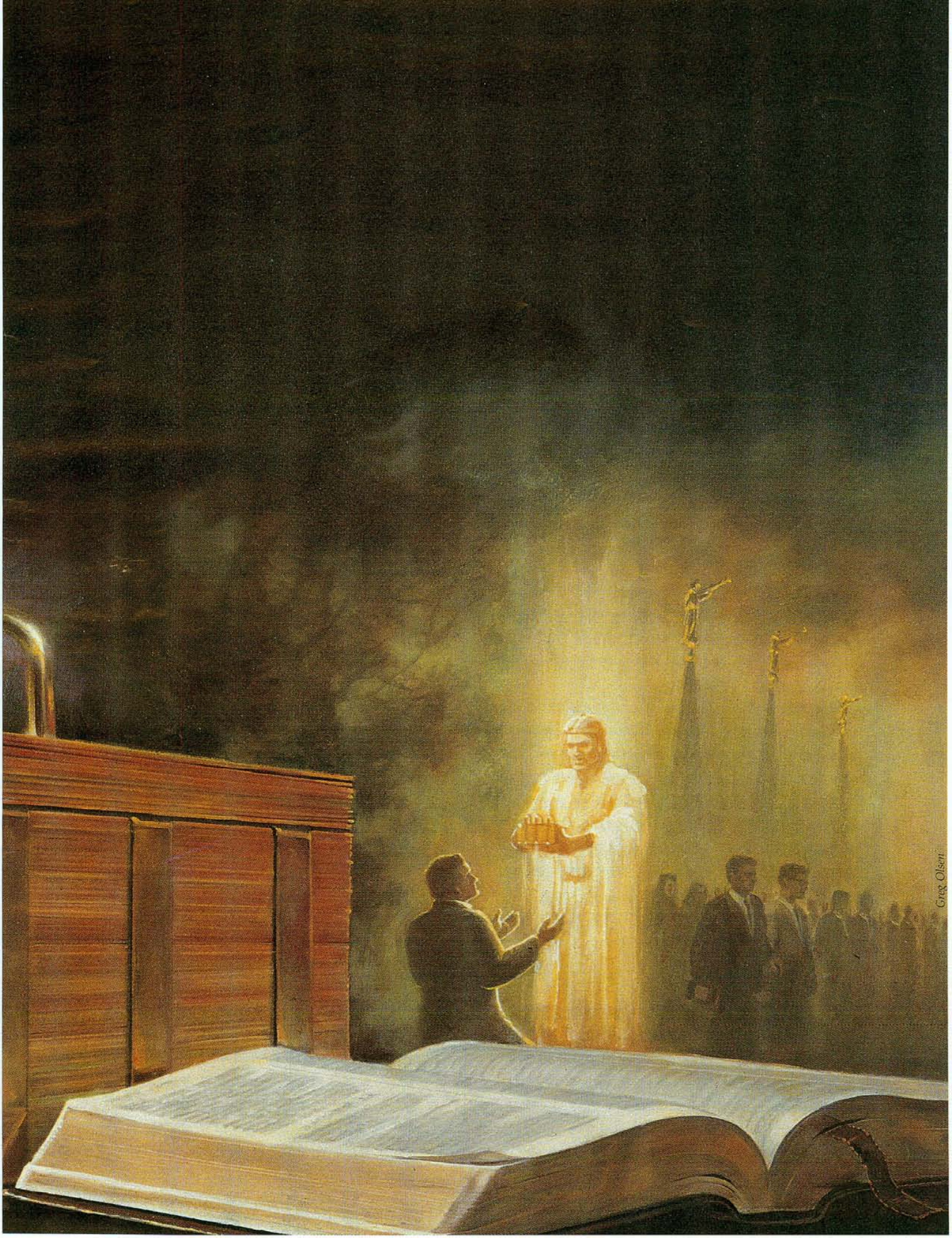
진리처럼 영원함

몰몬경의 초판이 발행된 이래 158년이 지난 오늘날 몰몬경은 교회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널리 읽혀지고 있읍니다. 초판의 발행 부수는 5,000부였지만 오늘날의 발행 부수는 100만 부나 됩니다. 현재 몰몬경은 70여 개국의 언어로 출판되고 있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몰몬경의 힘은 진리처럼 영원하고, 전 인류와 같이 온 세상에 미칩니다. 몰몬경은 표지에 독자가 성스러운 권세로써 몰몬경의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약속을 싣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몰몬경의 기원은 기적적인 것입니다. 몰몬경의 기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그 기원은 거의 믿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몰몬경은 지금 여기에 있으며 만져 보고 읽을 수 있읍니다. 아무도 몰몬경의 존재를




Greg Olsen

논박할 수 없읍니다.

몰몬경의 기원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설명이 아닌 다른 설명은 모두 확실성이 없읍니다. 몰몬경은 고대 미대륙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구대륙의 경전인 것과 같이 몰몬경은 신대륙의 경전임에 틀림없읍니다. 각 경전은 서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읍니다. 각 경전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영, 즉 확신시키고 개심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읍니다. 두 경전은 모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아들이며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몰몬경 이야기는 오래 전에 있었던 민족의 연대기입니다. 그러나 몰몬경에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에 관한 설명이 현재의 조간 신문처럼 잘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 보다 더 명확한 영감받은 설명도 나와 있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길을 따르는 사회의 비참한 결과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다른 기록이 없음을 압니다. 몰몬경 각 페이지에는 한때 이 서반구에서 두 문명국에 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으며 이 나라는 각기 작은 나라로써 시작되었읍니다. 각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생활했읍니다. 그러나 번영과 더불어 악도 싹트기 시작했읍니다. 백성들은 야심과 음모에 가득찬 지도자들의 간계에 굴복했읍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과중한 세금으로 압박하고 허울좋은 약속으로 달랬으며, 자유 방탕한 호색적인 생활을 묵인하고 권장하기도 하였고 수백 만 명의 죽음과 두 시대에 번성했던 두 문명국의 최후의 완전한 멸망을 초래한 무서운 전쟁으로 이끌었읍니다.

이 신성한 책에 있는 경고와 함께 이야기된 두 큰 나라의 역사는 우리에게 과학과 교육과 무기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려면 의롭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할 때 번성하고 발전하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무시할 때 의로운 생활로 제압하지 않는다면 무기력과 죽음에 이르는 쇠퇴가 다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다른 경전은 없읍니다. 몰몬경은 구약의 잠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증거해 줍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14 : 34)

감동적인 가장 훌륭한 메시지

몰몬경은 우리의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설득력있게 언급하고 있으나 몰몬경이 전해 주는 감동적인 훌륭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야인 그리스도이시라는 감명깊은 참된 간증입니다. 이 책은 팔레스타인의 먼지 많은 길을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 삼일에 무덤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이 서반구의 백성들을 방문하신 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읍니다. 그는 일찌기 이 서반구의 백성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었읍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 : 16)

수세기 동안 나사렛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언의 기록은 성경뿐이었읍니다. 지금은 인류를 주님에게 인도하기 위한 두번째의 힘있는 증거가 성경 옆에 서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교회에 들어온 경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어떤 사랑스러운 처녀와 데이트하고 있었읍니다. 그녀를 방문했을 때 탁자 위에 몰몬경이 한 권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읍니다. 나는 그 이전에는 그 책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읍니다.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읍니다. 흥미를 갖게 되었읍니다. 나는 몰몬경을 한 권 구해서 끝까지 다 읽었읍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통적인 개념밖에 없었읍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동안 내 마음 속에 빛과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내 가슴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간증이 들어왔읍니다."

몰몬경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의 경험은 지난 158년 동안 수백 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합니다.

브리감 영, 윌라드 리챠즈, 올슨 프랫과 팔리 프랫 및 많은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을 개종시킨 바로 이 책은 아르헨티나, 핀란드, 가나, 대만, 통가 및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 곳의 백성들도 개종시키고 있읍니다. 백성들이 멸망한 후에 외로움 속에서 씌여진 모로나이의 약속은 매일 성취되고 있읍니다. (모로나이서 10 : 4~5 참조)

진리의 확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읽도록 권고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진실로 알려는 열의를 갖고 읽는다면, 그들은 성신의 권세로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지식으로부터 수많은 다른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몰몬경이 참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실재하시며 그분은 지체를 가지신 분으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그들의 행복을 모색하고 계시다는 엄숙한 사실에 대한 간증이 이 책의 각 페이지에 면면히 흐르고 있읍니다.

만일 몰몬경이 참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처녀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아름답고 우아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육신으로서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니파이일서 11 : 13~21 참조) 그것은 이 책에서 어떤 문학 작품에도 뒤지지 않게 묘사하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면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몰몬경을 보존하고 다시 나타나게 한 위대한 목적은 그 자체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몰몬경 표제지 참조)

몰몬경이 참되다면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읍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에 대한 이 간증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참되다면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예언자입니다. 그것은 이 말일의 사업이 시작되게 한 예언자 요셉이 지녔던 모든 열쇠와 은사와 권세와 권능을 그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면 이 교회는 참됩니다. 그것은 이 거룩한 기록이 빛을 보게 한 똑같은 권능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존하며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구세주께서 팔레스타인에 세우신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이 거룩한 기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세우신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몰몬경이 참되다면, 성경도 참됩니다. 성경은 구세계의 성약입니다. 몰몬경은 신세계의 성약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기록입니다. 몰몬경은 요셉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경전은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어 주님의 손 안에서 합쳐졌읍니다.(겔 37 : 19 참조) 이 둘은 합쳐져서 세상의 구속주의 임금되심과 그의 왕국의 실재를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나라 사람의 심금을 울린 음성이 있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빈부를 막론하고 교육 유무를 막론하고 그 권세 하에서 성장해 왔읍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받은 어떤 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읍니다. "저는 감옥에 있읍니다. 저는 최근에 구내 도서실에서 몰몬경을 우연히 보게 되었읍니다. 저는 그것을 읽었으며 몰몬이 그의 타락한 백성에 대하여 탄식하는 것을 읽었읍니다. '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어찌 너희가 주의 길을 떠났더냐! 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서시어 팔을 벌려 너희를 맞으시려 하던 예수를 거절하였더냐!'(몰몬서 6 : 17~18)이 말씀을 읽을 때 몰몬이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읍니다. 이 책을 한 권 구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그에게 몰몬경을 한 권 보냈읍니다. 얼마 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나의 사무실로 왔읍니다. 그는 몰몬경의 영에 의하여 감동받았으며 재활해서 오늘날 자수성가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정직하게 생활비를 벌고 있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이 훌륭한 책의 권세는 바로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미 몰몬경을 몇 번 읽으셨든지 관계없이,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가정에 주님의 영이 더 많이 임할 것이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할 것을 굳게 결심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굳은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개념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1. 팔리 피 프랫은 일생 동안 전적으로 몰몬경의 영향을 받고 또한 몰몬경의 진실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희생한 수많은 사람의 한 예입니다.

2. 몰몬경의 기원은 기적적이며, 독자가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거룩한 권세에 의하여 알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3. 몰몬경이 참되다는 지식은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이라든지 교회의 거룩함 등과 같은 수많은 다른 것의 참됨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4. 성경과 마찬가지로 몰몬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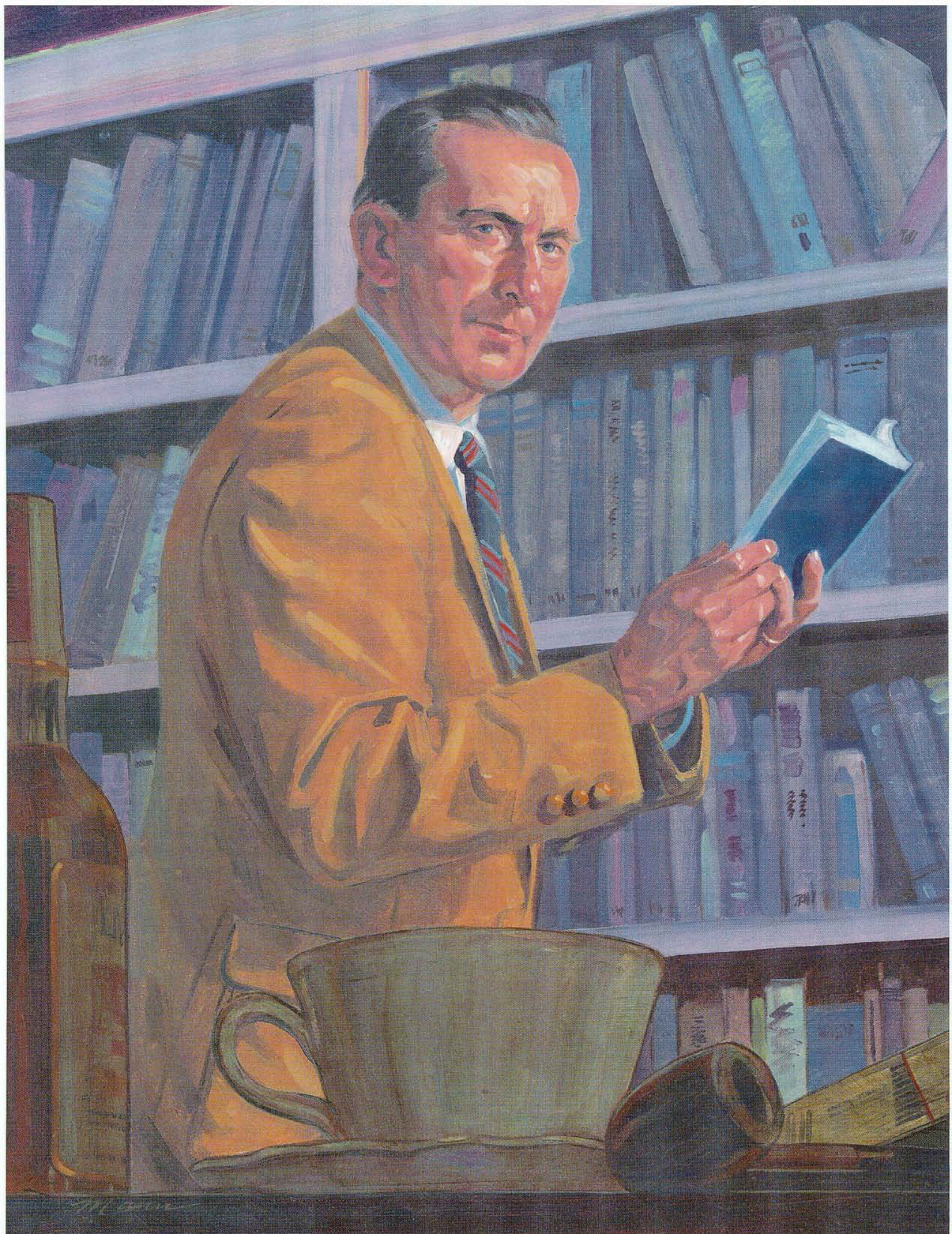
5.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제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몰몬경은 조간 신문처럼 현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관하여 영감받은 명확한 책입니다.

6. 이전에 몰몬경을 몇 번이나 읽었든지 상관없이 다시 이 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은 자신의 가슴과 가정에 주님의 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몰몬경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이것에 대한 가족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하고 금년에 몰몬경을 읽도록 권고한다.

2.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 토론이 좀더 훌륭하게 될 것인가?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으로부터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나의 생활이 변경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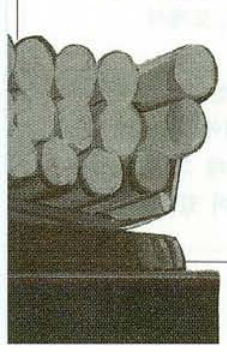
티에이치 지 바알맨

나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늘 하나님을 찾아왔다. 나는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을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실재하는 존재이며 어떤 막연하고 정의내려지지 않은 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상상하기는 좀 어려웠다. 나는 그가 흰 곱슬머리에 수염이 난 위엄있는 노신사로서 다정한 얼굴과 빛나는 푸른 눈을 가진 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어렸을 때 별들이 그분의 거실을 비쳐준다고 상상했는 데 그때에는 그분이 그 별들 사이에 사시는 분으로 생각했다.

우리 동네의 어떤 교회로부터 받은 예배 안내 카드를 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구세주께서는 갈색의 곱슬머리에 크고 밝은 눈을 가진 멋진 남자로 그려져 있었다. 그분은 비열한 로마 법정에 의해서 상처가 난 옆구리의 잔인한 흉터를 가냘프고 못자국이 난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분의 흰옷 틈으로 그분의 사랑이 가득한 가슴에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구세주와 접했던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그분에게 가장 좋게 나를 소개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금지하신 것은 거의 모두 다 행하고 있었다.

여러 해가 흘러 나는 훌륭한 여성과 결혼했고 우리에게는 말 잘 듣고 사랑스런 자녀들이 생겼다. 우리는 일상 생활의 물질적인 면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며 또 건강 상태도 좋았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내가 살아 온 죄많은 생활과 주님에게 너무나 감사를 적게 드린 것 때문에 극심한 자책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더이상 그러한 느낌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은밀한 장소로 가서 내 마음 속에 품었던 것을 모두 주님에게 말씀드렸다. 용서를 빌고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나의 문제는 내가 따라야 할 길은 알고 있었으나 그 길을 완전하게 따라갈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따금 그 길을 따르려 노력했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여러 종교 단체를 찾아다니며 때로는 길가에서 흔히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종종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 무리의 지도자는 아주 진실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예수에게 와서 그를 믿으라고 충고했다. 그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피가 선생님을 구해 주실 것이며 선생님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쉽게 생각되었다. 나는 죄로 얼룩진 상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선 나는 완전히 깨끗해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나에게 어려운 점이었으니 그 까닭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드린 다음부터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 예를 들어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십일조에 관한 것을 읽은 다음에는 내 수입의 십분의 일을 비영리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품행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했다. 정직해지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욕설하거나 저속한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겨서 좀더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게 해 주었다.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술이 흙탕물 맛같이 느껴졌다. 커피를 마시면 구역질이 났다. 홍차는 소화 불량에 걸리게 했다. 더러운 갈색 물질이 담배 파이프를 통하여 입과 목구멍을 통해 흘러 들어가는 꿈을 생생하게 꾸고 난 후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는 중독 상태가 끝났다.

이러한 일들이 생긴 후 어떤 민간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우연히 몰몬경을 보게 되었다. 호기심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 데 몹시 흥분하게 되었다. 불행히도 나는 그 도서관의 정식 회원이 아니었으므로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책과의 접촉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열

나흘 후 미국식 발음을 하는 두 명의 젊은이를 만났다. 그 중 한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내 읽고 싶으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몰몬경이었다.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갔는 데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나는 그 누워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몰몬경을 읽었다. 니파이이서 31장과 32장을 읽게 되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왔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곧고 좁은 길을 가는 관문으로써 회개와 침례에 대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또 우리를 도와줄 동반자인 성신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을 읽는 동안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만일 이것이 내 생애에서 행하는 마지막 것이라면 내가 침례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침례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 독감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 집 욕조에서 나를 침례주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미친듯이 그 선교사들의 주소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 교회가 우리 동네 어딘가에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었다.

곧 건강이 다시 좋아졌으며 나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손에 몰몬경을 들고 두 선교사들에게 가서 가능한 한 빨리 침례를 달라고 함으로써 그 장로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접견하는 동안 그들은 내가 이미 신앙, 회개, 십일조를 바침, 지혜의 말씀을 지킴 등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1977년 5월 18일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나의 아내도 처음에는 약간 의심했으나 같은 해 8월달에 침례받았다.

내가 개종하고 침례받은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또 몰몬경이야말로 나를 개종시킨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읽음으로써 현재 내가 기쁘게 걷고 있는 곧고 좁은 길로 인도 받게 되었다. *

질의 응답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사실로 인하여 다른 교회에 있는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조오지 라이먼,
솔트레이크 대학
제21와드 감독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을 제공해 주는 훌륭한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셨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생에서, 영의 세계에서 혹은 복천년 시대에 복음을 충만하게 배우고 구원의 의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계획, 즉 전세, 현세, 영의 세계, 복천년, 마지막으로 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 우리는 이 지상에 온 사람은 모두 어떤 면에서는 선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선택했으며 천국 전쟁에서 천군의 삼분의 일은 떨어져 나갔는 데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읍니다. (계시록 12 : 1~10 ; 교성 29 : 36~37 ; 모세서 4 : 1~4 ; 아브라함서 3 : 22~28 참조)

쫓겨나지 않은 사람들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 의지를 갖고 육신을 받으며 이 지상에 올 기회에 대한 약속을 받았읍니다. 그들은 한 구속주를 약속받았는 데 그 구속주가 죽음을 이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게 되어 있었읍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 계명, 또 그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의식 등이 포함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 계획에는 그들이 아무 죄없이 무죄하게 태어날 것이라는 것과(교성 93 : 30, 20 : 71, 68 : 27 참조) 복음의 더 큰 빛으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그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요한복음 1 : 9 ; 모로나이서 7 : 16~18 ; 교성 84 : 45~46 참조)

현세.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과 선과 악 가운데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며,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기 전에 팔 년 동안 무죄한 상태를 받고 있읍니다.

현세 그 자체는 측량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성장할 수 없는 방법으로 현세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능력을 갖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또 죄를 극복할 기회도 갖게 되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생활하시는 대로 생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지만 동시에 하나의 문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읍니다. (에베소서 5 : 5 ; 앨마서 7 : 21 참조) 또 우리는 모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잘려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읍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 : 16)

그리스도의 속죄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하며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성약과 우리의 회개와 충실함은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해줍니다. 이 성신의 은사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좀더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우리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읍니다.

이 모든 의식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종들을 통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행하십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권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교성 84 : 20~22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지시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모두 이 위대한 은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도 없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 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읍니다. 또 어릴때 죽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의 세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기쁜 소식은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이 세상에서 못 배우면 후에 영의 세계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조직하시고 지상에서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선교사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죽은 영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영의 세계에서 사흘을 보내셨읍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모든 죽은 자들이 그의 복음을 충만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사업을 조직하셨읍니다. (요 5 : 25 ; 베전 3 : 18~20, 4 : 6 ; 앨 40 : 11~14 참조)

구세주께서는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을 받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의식을 받을 수 있게 하셨읍니다. 대리로 행하는 기타 의식과 마찬 가지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우리 산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위하여 침례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 의식의 혜택을 누릴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살았던 이 세상의 선한 사람들이 현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도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세주 시대 이후에 살았던 이 지상의 선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완전하게 전파되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지상에서 그들을 위하여 대리로 행해지는 구원의 의식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과 복천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은 기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의 선한 사람들은 복천년이 시작될 때 의인들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읍니다. (요 5 : 29 참조) 직접 혹은 대리에 의해서 침례탕 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해서 그가 돌아오시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전 15 : 22~23 ; 계 20 : 4~6 ; 교성 76 : 50~70 참조) 침례받지 않고 죽은 어린 아이들도 이때 역시 영생의 상속자로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복음을 거부했거나 선하고 명예로운 생활을 한 사람들은 복천년이 시작된 직후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아니하였거나 깨끗하게 명예로운 생활을 한 말일성도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모사 15 : 24~25 ; 모로 8 : 22 ; 교성 45 : 54, 76 : 71~79, 88 : 97~99 참조) 사탄이 묶이는 일천 년 동안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쁘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록 20 : 1~6 ; 교성 45 : 58~59 참조)

복천년이 끝나게 될 때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는 복음을 결코 받아들인 적이 없이 죄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들—하나님의 계명은 알았으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교성 76 : 81~82 ; 모사 15 : 26 참조) 마지막으로 부활할 사람은 멸망의 자식으로서 주님의 권세를 충분히 알고 그것에 참여했지만 진리를 등지고 돌아서서 성령의 간증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마와 악마의 천사와 함께 영원히 쫓겨날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교성 76 : 31~43 참조)

이때 사탄이 풀려나게 될 것이며 그는 악인들을 모아서 심판의 날 이전에 의로운 자와 전투를 할 것입니다. (록 20 : 7~9 ; 교성 88 : 110~116 참조) 그때가 되면 선한 사람들은 미가엘과 합세하여 사탄과 싸우며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무찔러 이기시는 것을 볼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른 교회의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택하거나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대항하든지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과 천국. 큰 심판의 날이 되면 이 지상의 선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읍니까? 우리는 그때가 되면 교회 회원들은 모두 다 "천국"으로 가게 되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읍니다. 구세주께서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으며 영광에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세 등급이 있다고 가르치셨읍니다. (요 14 : 2~3 ; 고전 15 : 41 ; 교성 76 : 96~98 참조) 가장 낮은 단계의 영광인 별의 왕국도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가히 짐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성 76 : 89)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자신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과 신앙에 따라서 각각 여러 등급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해의 왕국을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임재하심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성 76 : 62 참조) 달의 왕국을 받는 사람들은 아들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며 별의 왕국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과 또 그 왕국에 지명된 천사들의 성역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교성 76 : 77~78, 86~88 참조) 멸망의 자식들만이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가해한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심판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렇게 아량이 크고 참을성이 있으며 포괄적으로 행하겠읍니까. 구원의 계획은 과거에 살았고, 현재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지상에서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생에 있어서의 지위나 상황으로 인하여 이것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위대한 풍요함을 누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계획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와 신자가 모두 다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전적으로 훌륭한 방식으로 분명하게 인간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갖고 계시는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니파이가 말한 대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가운데 선을 행하시니라. 또한 주는 범사를 인간들에게 간결한 뜻으로 행하시며 만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검거나 희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이거나 구분치 아니하시고, 이교도까지라도 기억하시리니,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니라."(니파이이서 26 : 33)*

"우리는 의로운 자에게는 영의 세계가 휴식처가 된다고 배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린이 학대 등과 같은 것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지고 다니는 감정적인 피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은 후에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계속 힘든 투쟁을 하게 될까요?"

앨렌 이 버긴,
브리감 영 대학교
심리학 교수,
비와이유 제십일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임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정서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로 억울한 고통을 받습니다. 어린이가 육체적인, 정서적인 혹은 성적인 학대에 의하여 그것도 특히 부모에 의해서 그러한 학대를 받았을 때 생겨난 정신적 및 정서적인 문제는 어른이 될 때까지도 연장될 수 있읍니다.

또 그 외에도 정신적 및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원인이 있읍니다. 과학자들은 심리적인 문제 가운데 육체 내에서의 생화학적인 결함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읍니다. 마약이나 알콜에 중독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러한 것에 의지하는 경향은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읍니다. 중대한 정신적인 장애나 만성적인 정신분열증 등도 생화학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된 상태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음과 육신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곳은 환경이나 생물학적인 것, 또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신적인 건강과 정상적인 행동에 반대되는 작용을 할 수 있읍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을 어느 정도는 물려 받는다. 유전의 영향은 인정된다.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 축복과 저주는 대대로 전해 내려 간다. 아담의 후손은 당연히 필멸성을 물려 받은 상속자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들은 모두 이와 같은 타락의 상태로부터 구속되었다."(신앙개조, 79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로 인하여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닌 감정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읍니다. 생물학적인 결함에 의해서든 환경의 압력에 의해서 생겨났든지 그러한 비정상 상태로부터 풀리게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화평과 안식의 상태를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사이야서 3 : 11 ; 앨마서 40 : 11~14 참조)

주님이 공의로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비행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지상에서의 시험기간 이후에도 고통받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변화할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관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리라고 합리화하는 것도 정당화 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아니하심"을 알고 있읍니다. (앨마서 45 : 16)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인 유전과 또한 환경의 결합으로 인한 동성 연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복음은 그 사람이 엄격한 자기 수양을 쌓아서 그 경향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한때 동성 연애자였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왔으며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과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똑같은 원리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성적인 학대, 마약이나 알콜 중독, 병적인 식생활, 공격성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극단적인 정신적인 장애나 이상 상태만이 진전을 보일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가 중대한 의학적인 문제와 일상적인 인간의 약점을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약점이 없다면 이 생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저들이 내 앞에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더서 12 : 27)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외부와 내부의 압력에 대항하여 우리의 영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어린이 학대 등과 같은 악을 유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자유 의지와 책임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자녀들이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한 데 따르는 책임의 결과에 의한 고통을 받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한 결과는 그들 자신의 행동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생겨날 수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이 생에서 그러한 상처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애를 쓴다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위안을 받을 수 있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를 배울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거운 증오심의 짐을 벗어 버리고 속죄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선으로 회복"되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힘을 얻게 될 수 있읍니다.(앨마서 41 : 3)*

어린이와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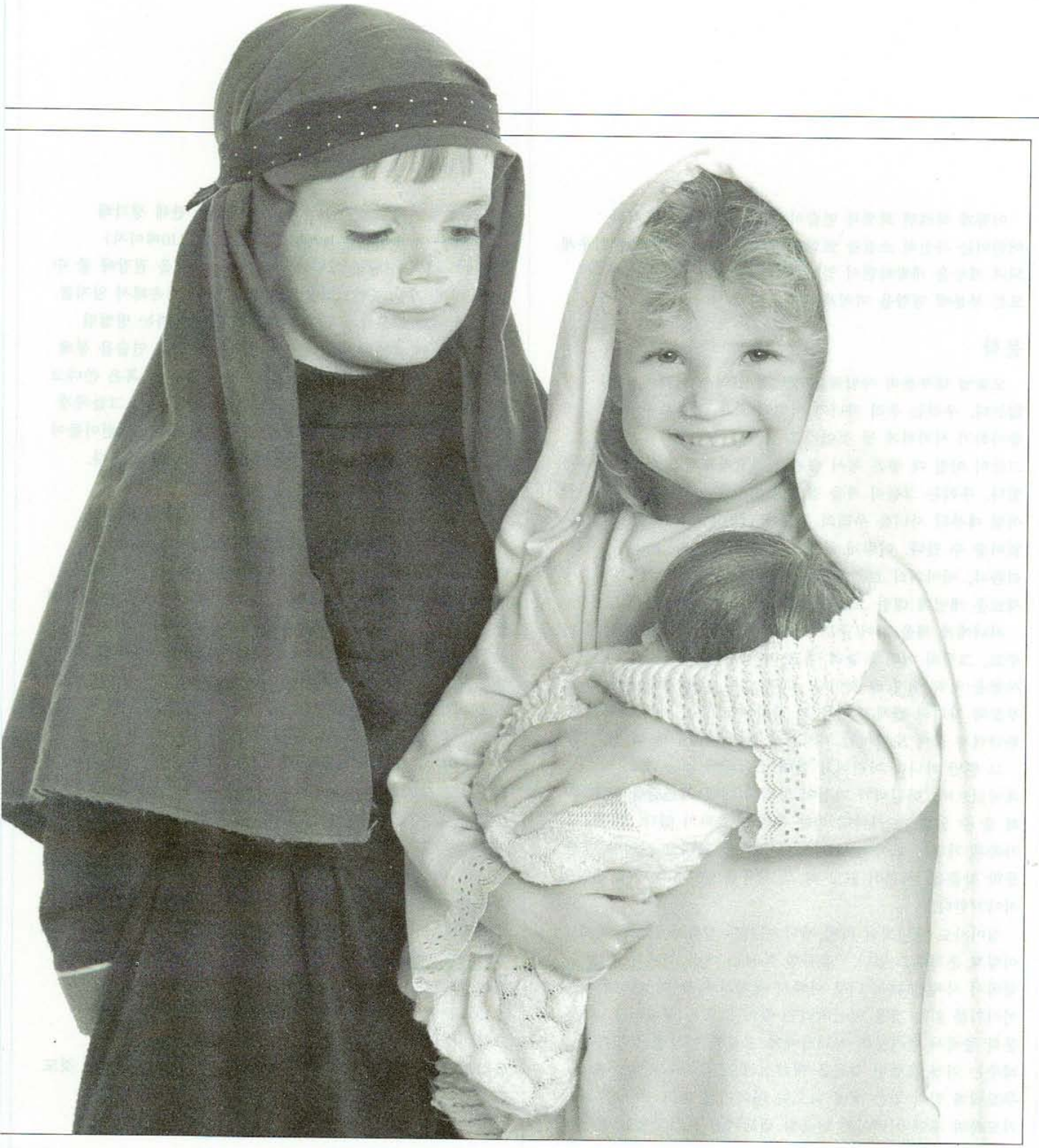
가족을 위한 지침서

문화 예술은 우리 생활에서 미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예술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족은 가족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예술은 우리가 영감을 주고, 가르치고, 교화하는 것을 동시에 다 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 서로 다른 예술에 자연히 끌리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문학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조각이든, 연극이든, 무용이든 가장 마음에 끌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한다.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기본적인 교리이다.(교성 46 : 11 참조) 리듬 감각, 가창 능력, 완벽한 음정, 말하는 능력, 육체적인 조화와 우아함, 이 모든 것이 다 은사가 된다. 비록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각자 개발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누구나 어떤 재능을 물려 받았읍니다."라고 썼다.(청소년 인스트락터, 1903년, 689페이지)

모든 어린이는 창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가 그 창의성을 각각 개인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글이나 음악, 미술, 또는 무용으로 묘사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음악, 무용 등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권장할 때 그들 자신의 문화적인 유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각 자녀의 능력과 잠재 능력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그들이 각 분야에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어린이는 개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족 내에서 모든 자녀가 똑같은 재능을 갖고 그것을 모두 다 똑같이 잘 표현할 것을 부모가 기대하는 것보다 어린이의 자유로운 창의성 개발에 해로운 것은 없다. 부모는 자녀들이 받은 은사를 알아내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그러면 각자 재능을 키우고 발전시킬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희생과 연습이 흔히 요구된다. 그러나 어린이는 자신의 소질을 표현할 때마다 그러한 능력을 키우게 되며 재능을 개발하면서 얻게 된 자기 수양은 그의 생애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학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처럼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든 저절로 독서를 좋아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들이 어릴 때 좋은 독서 습관을 개발하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들이 책을 잡고 페이지를 넘기지도 못할 만큼 어릴 때부터 자녀를 우리의 무릎에 앉혀놓고 소리내어 책을 읽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단어의 소리와, 시의 리듬과, 이야기의 흐름을 소개해 주게 된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개념에 대한 그들의 흥미를 자극해 줄 것이다.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면 또 그들의 집중력 범위를 넓혀 주고, 그들의 어휘를 늘려 주고, 훌륭한 문학 작품에 대한 사랑을 키워 주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함께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더 강화되고 모든 자녀가 훌륭한 판단력과 함께 도덕적인 가치관과 상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함께 소리내어 읽는 것은 재미있으며, 어린이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 줄 수 있다. 드라마나 시는 특별히 효과가 있다. 어떤 가족은 가정의 밤이 끝날 때마다 가족이 교대로 기억할 만한 문학 작품을 한 편씩 읽고 왜 그 작품을 좋아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 "훌륭한 독서는 어린 자녀의 침대 옆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바빠서 잠자리에 들 때 건전한 이야기를 읽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동 문학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상한 이상을 갖도록 해주는 가장 훌륭한 작품을 택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부모에게 안겨 좋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란 어린이와 난폭한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어린이들과의 차이점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09~110페이지)

자녀가 아직 상당히 어릴 때부터 글쓰는 것을 권장해 줄 수 있다.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그들이 계속해서 일지를 쓰고, 친척과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권장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른 재능과 마찬가지로 글쓰는 능력도 연습을 통해 발전한다. 만약 어린이들이 글을 쓰지 못한다면, 혹은 쓴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 주고, 그들에게 각자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이 될 수 있는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음악

음악은 국제적인 언어이며 훌륭한 음악은 사람들을 단합시켜 주는 따스함과 자기 표현의 방법을 제공해 준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내에서도 훌륭한 음악은 우리를 공동의 감정 속에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 이것은 많은 가족 활동을 경험할 분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가정의 밤과 복음 연구 시간은 훌륭한 음악이 수반될 때 크게 강화되며, 가족 기도를 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면 영이 그곳에 함께 하도록 할 수 있다.

가족이 어떤 종류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고 생각해 본다. 그것은 다양한 가치관에 대하여 토론할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대중 음악을 너무 많이 듣지 말라고 설득시키려고 애쓰기 보다는 보다 더 긍정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다. 자녀와 함께 앉아서 그곳에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음악을 열거하고, 가족들이 각 종류의 음악을 얼마나 자주 듣는지 토의한다. 몇 주 동안 그들이 일상적으로 듣는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음악도 듣도록 제언한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노래부르기를 즐거워하며, 특히 그들이 어렸을 때 노래를 불러 주면 더욱 더 좋아한다. 음악적인 표현에는 음악을 듣는 것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부모가 훌륭한 음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그들 자신도 훌륭한 음악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미술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자주 우리에게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권고해 왔다. 우리는 우리 집의 벽을 아름다운 사진이나 그림으로 장식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가족원들의 사진과 성전 및 예언자들의 사진과 구세주의 그림을 전시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르침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복음에 관련된 미술 작품은 여러 가지 개념과 감정에 대한 너무나 힘있는 교사가 되며, 영원한 원리를 매일 상기시켜 준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우리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는 연필이나 펜이나 크레용을 잡을 수 있게 되면 곧 자기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기호와 색깔에 반하게 된다. 만약 격려해 주고 북돋아 준다면 거의 모든 어린이가 이 세계를 그들 눈에 비치는 그대로 표현하는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할 수 있다.

드라마와 무용

음악과 무용과 연극은 어떤 문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학교나 대학이나 지역 사회 단체에서 훌륭한 드라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가 많이 있다. 가족들은 그들이 사는 고장의 연극을 보러 가는 것이 영화보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많다. 텔레비젼도 또 가족이 연극, 발레, 심지어는 오페라까지 감상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어린이들은 기회가 있으면 변장하고 또 의상을 차려입기를 좋아한다. 부모는 가정의 밤 시간에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들에게 연기해 보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성향을 권장해 줄 수 있다. 어린이들은 또 훌륭한 음악에 맞춰 적절한 춤을 춤으로써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예술과 복음

예술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도 많이 적용되어 왔다. 가족은 어떤 것이 훌륭한 예술인지 나쁜 예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쁜 "예술"이라고 해서 항상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예술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참 생각한 후에야 그것이 복음 가치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수도 있다. 우리는 복음 표준에서 예술을 평가하는 수단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술은 신앙과 희망을 표현할 수 있다. 또 죄와 절망감을 조장할 수도 있다. 예술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으며 또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에 들어앉히려 할 수도 있다. 다양한 문화 예술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술적인 표현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식견*, 즉 덕스러운 것과 부도덕한 것, 잘 만들어진 것과 형편없이 만들어진 것, 사람을 승화시키는 것과 격하시키는 것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감상하도록 권장함

가족 평의회 모임에서 가정에서 문화 예술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가정은 각 자녀가 자신의 생활에 아름다운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 그들은 예술감상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풍부해질 것이며 더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더 잘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온 창의적인 재능을 표현하고 만족시켜 주기 위한 시간과 재료를 마련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뿐이다. *

월남의 한 말일성도가 국가 분열과 조국 상실에도 불구하고 십 년 동안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신앙을 지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함

산드라 윌리엄즈

태국의 후덥지근하고 더운 아침에 새로 성임받은 그 장로는 그 오두막의 거친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낡은 신문을 깔고 그 위에 무릎꿇고 앉았다. 그는 중고품 와이셔츠와 낡은 넥타이를 걸치고 발에는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는 경건하게 빵을 떼고 축복했다. 타크 쿠옹은 성찬식에 참여할 기회에 감사할 뿐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도 감사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에 자기 가족을 이끌고 전쟁으로 황폐하게 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통과하여 태국의 파낫 니콤에 있는 유엔 난민촌에 약속되어 있는 자유와 안전을 찾아 온 것이다.

타크 형제는 처음 그 난민촌에 도착했을 때, 교회의 복지 봉사 선교사인 엘리스 존스 자매에게 전통적인 캄보디아의 인사 방법인 머리 숙여 절하는 대신에 악수를 청하여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은 교회 회원이며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복지 봉사 선교사들은 피난민에게 서양 문화와 제이의 언어로써 영어를 가르치는 임무를 받고 있었으나 전도 사업은 유엔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국의 허락을 받아 난민 교회 회원들이 일요일 예배를 포함하여 교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었다.

타크 형제의 소식을 들은 존스 자매와 기타 복지 봉사 선교사들은 당시 동남 아시아의 교회 집행 관리자인 칠십인 제일 정원회 매리온 디 행스 장로에게 연락하여 아론 신권 소유자가 그 난민촌에 도착한 것을 알려 개인 접견을 한 다음 타크 쿠옹 형제를 장로 직분에 성임했다. 존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타크 형제는 그 난민촌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신권 소유자였읍니다. 그가 성임 받음에 따라 우리는 일요 예배를 보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었읍니다."

글로 쓰어진 말씀으로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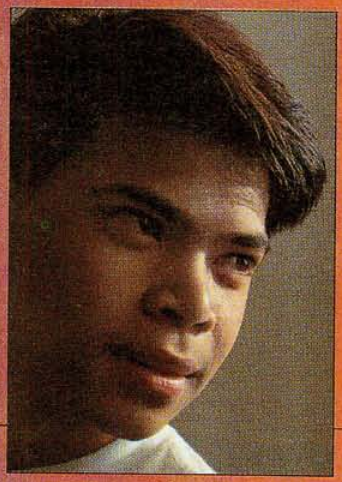
타크 형제는 1971년 미국에서 월남 공군 훈련 교육을 받는 동안에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말일성도 친구들을 사귀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선교사 토론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약 9개월 후 월남으로 돌아온 뒤 경전을 담아 두었던 서류 가방을 도둑맞았다. 당시에 월남 수도에 지부가 실제로 있었는데도 그는 월남에 교회 조직이 있다는 것을 일체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영어로 된 교회 잡지인 *엔사인* 12개월 정기 구독권을 선물받았다. 그 엔사인 열 두 권을 읽고 또 다시 읽음으로써 그 후 십 년 동안 영적으로 지탱되었다. 월남 정권이 바뀌고 "외국"

타크 쿠옹은 좀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인도지나 탈출을 시도하는 수많은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난민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죽는

유인물이 의심받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엔사인*을 더욱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숨겨 두었다.

그는 월남을 떠나 난민촌에 도착했을 때 *엔사인*지에 편지를 써서 자기 편지를 미국에 있는 옛날 말일성도 친구에게 보내주도록 부탁했다. 그 친구의 주소를 추적해 찾았다. 그 친구는 타크 형제와 편지를 주고 받기 시작했으며 그가 미국으로 이민오도록 후원해 주었다.

타크 쿠옹은 좀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도지나 탈출을 시도하는 수많은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난민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다.



전쟁으로 황폐된 조국에서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타크 쿠옹과 그의 가족은 현재 평화롭고 안락하게 생활하면서 일하고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실은 작은 배에 올라 타고, 그 배들은 바다의 폭풍이나 해적이나 굶주림이나 탈수 현상으로 쓰러지기 전에 친절한 선박이 구조하러 왔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필사적으로 대해로 나갈 때가 흔히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타크 형제처럼 잡혀서 사형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남쪽에 있는 월남으로부터 북쪽 캄보디아를 통해서 중립 국가인 태국까지 여행한다. 타크 형제와 함께 탈출한 사람은 그의 아내 민단과 세살된 딸 민반과 여덟살 된 조카인 카이비엔이다. 타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카이비엔의 아버지는 부인과 여섯 자녀를 월남으로부터 탈출시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읍니다. 그는 나에게 아들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읍니다. 그 부부는 그렇게 하면 장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어도 그들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은 자유를 누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읍니다."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그 여행은 "안내자"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안내자는 타크 형제에게 금 1.5타엘을 내라고 했는 데 그것은 그가 열 여덟 달 동안 버는 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었다. 타크 형제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며 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 자금을 비밀리에 모아 두었다. 마침내 준비가 되어 얼마 안되는 소유물들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판 다음 이 가족은 1981년 삼월 달빛 없는 어느 날 밤 그 모험에서 성공할 것을 기도하며 출발했다.

기도가 응답되었음

타크 형제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그들은 월남 국민이었지만 그와 그의 부인에게는 캄보디아 혈통이 있었으며 그들은 여행할 때 캄보디아인 행세를 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우리는 항상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캄보디아 여자처럼 옷을 입었지만 어느 날 왜 그녀의 사통(일종이 허리띠)이 캄보디아식이 아니라 월남 식같이 보이는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의 질문을 받게 되었읍니다. 비록 이 두 나라는 문화적으로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지만 사통의 형태나 또 그것을 매는 방식에 차이가 있읍니다. 우리는 한 두 가지 변명을 늘어 놓았으며 계속해서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읍니다."

그들은 여러번 군인들에 의해서 정지당했었으나 그럴 때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갈 수 있었다. 타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한번은 검문소에서 정지 명령을 받았는 데 그곳에는 두 명의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었읍니다. 한 사람은 캄보디아 사람이었으며 또 한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었읍니다. 웬일인지 그 베트남 군인은 돌아서서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읍니다. 그 캄보디아 군인이 우리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했읍니다. 나는 그에게 사실대로, 즉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하기로 했읍니다. 그는 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읍니다. 만약 그 베트남 군인이 신분증을 보자고 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억류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은 그 외에도 많은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남쪽에 있는 밧담방까지 사람을 잔뜩 실은 낡은 버스나 자전거, 우차나 기차 등으로 가고 있을 때 강도의 공격을 받거나 작은 군사 전투에 휘말리는 등과 같은 갖가지 위험 요소를 피하게 되었다.

그들을 싣고 가던 기차는 지뢰에 의해서 손상된 철로를 수리하는 동안 자주 멈출 수 밖에 없었다. 타크 형제는 이렇게 설명한다. "철로를 트기 위하여 그 기차 승무원은 기관차를 객차로부터 떼어내고는 폭발하지 않은 지뢰를 모두 다 폭발 시키기 위하여 기관차를 이용하여 무거운 화물차를 밀어 보냈읍니다. 그런 후에 철로를 수리했읍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차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식량도 없이 길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읍니다."

타크 형제는 어느 수리 지점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기차를 떠나면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식구가 먹을 식량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기도했읍니다. 우리는 한동안 주식이 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먹지 못했읍니다. 약 5리 쯤 걸어간 다음 어떤 마을에 도달했읍니다. 나는 그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어떤 집에 가서 아주머니에게 식량을 좀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읍니다. 그 아주머니는 쌀을 한 남비 끓여서 바나나 잎으로 포장하고는 소금을 끼얹어 주었읍니다." 그는 그녀에게 값을 치른 후 그 쌀밥을 아내와 굶주린 두 아이에게 가지고 갔으며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가족은 마침내 밧담방에 있는 난민 촌에 도착했으나 그곳은 캄보디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크 형제는 좀 더 안전한 태국의 파낫 니콤에 있는 난민 촌으로 옮겨 주도록 요청했다. 그들은 월남을 출발한지 두 달 후인 오월에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은 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다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그의 아내 만단 타크가 침례받았다. 그녀는 지금 테일러스빌 유타 센트럴 스테이크의 테일러스빌 제40(월남) 지부에서 상호부조회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지부의 장로 정원회 회장단 제2보좌인 타크 형제는 현재 유타주에 제조 공장과 사무소가 있는 국립 공업 연구 회사의 전기 실험 기사로 일하고 있다. *

해답을 찾음

폴라 마이너

나는 십 삼년 동안 헌신적인 "거듭난" 기독교인이었으며 또 그에 못지 않게 열성적인 반 몰몬주의자였다. 조직적인 전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나는 상점과 공원과 많은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걸었으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애썼다.

나는 전도 사업을 하면서 말일성도를 많이 만났다. 나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며 사탄에 의해서 세워진 한 종파라고 말했다. 나는 반몰몬 서적을 많이 읽었었으며 그러한 "잘못 인도된 몰몬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했다. 내 생각으로는 그들은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요셉 스미스의 말을 믿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며 사방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그러한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자기 마음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도록 청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모두 고뇌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운명을 타고 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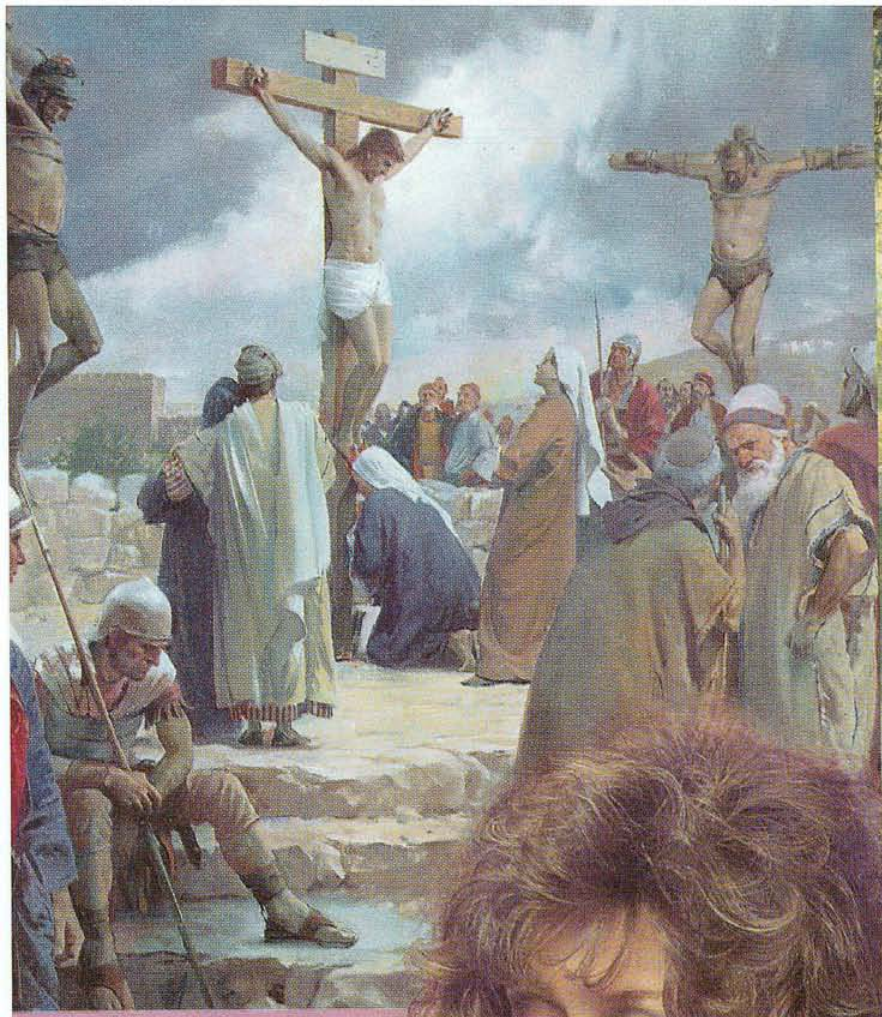
나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을 받았다. 나는 그 대답을 몰랐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무시하고 넘어갔다.

나는 너무나 괴로운 경험인 이혼을 한 다음 교회 가는 것을 그만 두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분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한동안은 내 생활에서 영적인 부분을 젖혀두기로 결정했다. 나는 비활동적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가지고 있는 비활동 말일성도와 결혼했다. 우리는 종교 문제는 좀처럼 논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주제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걸 그에게 보여 주려는 무익한 시도를 여러번 했다. 그는 조용히 듣기는 했으나, 그의 간증은 변함없었다. 그러던 중 가족 위기를 통하여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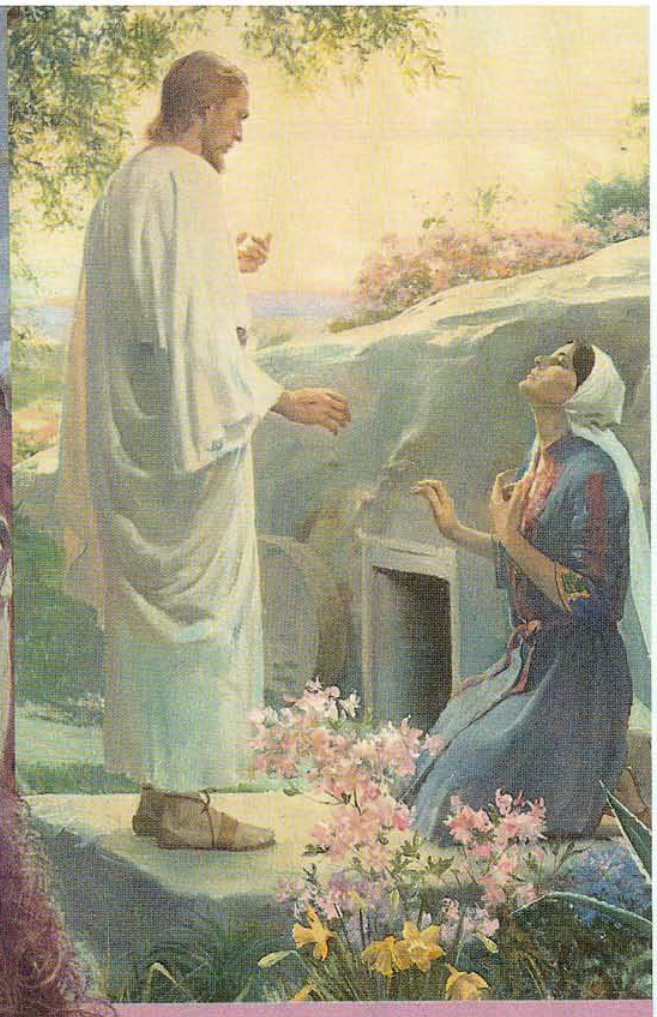
시아버지께서 암으로 중병에 걸렸으며 죽음이 가까와지자 교회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의 단순한 간증에 담겨 있는 어떤 것이 내 가슴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직접 이 교회에 관하여 진실을 찾아 보기로 결정했다. 나는 우선 경전 구절을 비교 참조하는 것을 시작했으며 놀랍게도 성경과 몰몬경 사이에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에게는 성경은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나는 아무런 의심없이 그것을 믿었다. 몰몬 교리가 성경으로 입증될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을 찾기 시작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책자를 뒤적거리는 동안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가 쓴 *기이한 업적*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읽는 동안 마치 그 책이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같이 느껴졌다. 나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기간 동안의 성역에 관한 신약 전서 성구를 발견했다. 또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발견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요 20 : 17) 그 분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인가? 나는 이전에 임종 시의 회개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도적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 : 43)고 말씀하신 것을 사용하곤 했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성구를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지만 그 구절을 정말로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속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조용히 옆으로 젖혀두었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 : 43)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요한복음 20 : 17)

교회는 구세주의 교회이며
이 교회의 교리가 그의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1984년에
침례받았다.
주님의 영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내 마음이
열리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참을성있게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다. *

*폴라 마이너는 알게디아
캘리포니아 스테이크의
몬로비아 이스트
와드에서 살고 있다.*

엘리아의 영

한 죽어가는 사람의 요청으로 4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또 두 개 대륙을 가로 질러 한 가족을 찾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음

루이스 로베르토 데르티아노. 나는 메네주엘라의 발퀴시메토 지방부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계보를 찾는 일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권고했다. 나는 직접 그 일을 열심히 했으나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기록 가운데 일부는 조국 페루에 있었기 때문에 좌절을 느꼈다. 나는 그곳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들은 교회 회원이

R.T. BARRETT

삼십년 동안 그는 언젠가는 그 이유를 완전히 알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그의 가족에 관한 자료를 찾고 수집하였다.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 주려는 생각을 그다지 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조상이 원래 유럽에서 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유럽으로 여행할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조상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는 바가 없었다.

세월이 흐른 후 나는 업무상 또 다른 도시 발렌치아로 여행하게 되었다. 그 기간은 교회에 대한 간증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시련에 의해서 강한 시험을 받고 있었던 기간이었다. 발렌치아에서 있는 동안 나하고 성이 같은 케파 데 데르티아노 와이 바스테라라고 하는 저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곳에 사는 회원인 봅 스틸하트가 그 저자가 사는 곳을 알아내는 일을 도와 주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데르티아노가 쓴 많은 책들을 점검하면서 그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 데르티아노의 집을 찾아 갔을 때 별로 운이 좋지 않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나가고 없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나에게 그날 밤 다시 오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다시 찾아갔을 때 데르티아노가 집에 와 있었으며 우리는 매우 특별한 모임을 하게 되었다. 곧 우리는 우리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비록 우리의 성은 같았지만 그는 스페인에서 온 바스크 사람이었으며 나는 페루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족보를 보여 주었는 데 나는 그 족보가 15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러한 기록을 수집하게 된 경우를 듣고 정말 놀랐다.

천주교회의 수도 원장이었던 데르티아노의 작은 할아버지가 임종 시에 그에게 그 가족의 족보를 수집해서 만들도록 부탁했다는 것이었다. 데르티아노는 그 요청이 죽어가는 사람의 부질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데르티아노 족보를 찾아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필요한 내용을 모으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야 했다. 그는 여러 번 그 일을 포기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꼈다. 한번은 그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는 데 작은 할아버지가 그에게 와서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꿈을 꾸었다.

그는 30년 동안 그러한 탐구를 계속하여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데르티아노 일가를 찾아내었다. 데르티아노는 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왜 그러한 사항을 수집하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었다. 언젠가는 그 이유를 완전히 알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맹목적으로 그 일을 해 왔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또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는 대리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또 그에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 주었다. 그 내용은 구세주께서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교리와 성약 138편의 일부를 읽어 주고 영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느끼는 기쁨과 그들이 우리 후손들 없이는 진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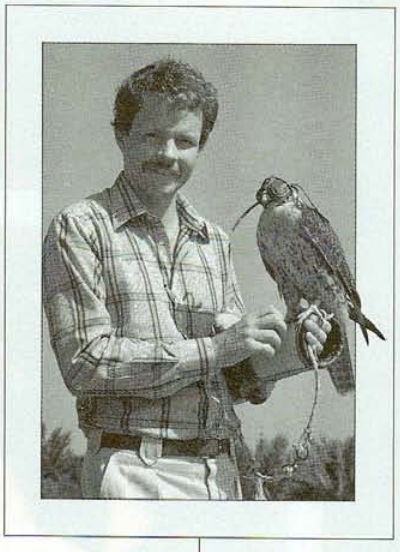
데르티아노는 자신이 그렇게 찾는 숨은 이유를 듣고는 떨듯이 기뻐했다. 그는 이제 63세가 되어서 마침내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출생 기록 및 결혼 기록과 이 세상 다른 곳에 있는 수많은 데르티아노 가족의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 기록 안에서 우리의 같은 조상을 찾게 되었을 때 또 그리하여 나의 가계도를 그의 가계도와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을 때 나의 기쁨과 감격은 차고 넘쳤다.

그는 자기 저서를 한 권 꺼내서 이렇게 적어서 나에게 주었다. "내가 평생 동안 찾았던 친척인 루이스 로베르토 데르티아노와 로사 릴리아나에게. 분명히 뭔가가 우리를 합쳐주었읍니다. 케파 데 데르티아노 와이 바르테라."*

우리 신앙의 오아시스

조셉 비 플랫



현재까지 우리는 십 이년간 미국에 있는 우리 고향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랍 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고 심지어는 위협감을 받기도 했으나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오히려 큰 성장과 영적인 진보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따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또 세상 어느 지역에서나 따뜻한 복음의 우정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원래 우리 계획에 의하면 내가 뉴욕의 코넬 대학에서 연구를 끝내면 미국 서부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6년에 바레인에서 또 나중에 두바이에서 제안받은 것은 놓치기에 너무나 아까운 것이었다.

잘 훈련된 매를 이용하여 새와 짐승을 사냥하는 고대의 매 사냥 스포츠는 지금도 아랍 반도에서 행해지고 있다. 1976년에 바레인의 황태자인 하메드 벤 이사 알 칼리화 족장은 매를 사로잡아 키우는 것을 현대의 경영 기법과 결합시키는 방식을 찾고 있었다. 그는 나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

바레인은 큰 산유국은 아니지만 1932년에 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기름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 나라의 통치자들은 그 결과로 생긴 부를 현명하게 활용하여서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극적인 대조가 되었다. 어느 날 교회 집회에 가는 길에 교통 신호를 받고 멈춰 있는 데 나는 내 앞에 호화로운 자동차가 있고 뒤에는 머리를 내빼고 있는 당나귀가 끄는 마차를 보게 되었다.

바레인 사람들은 현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슬람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그들의 일상 생활의 모든 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우호적이고 신사적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그들의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는 바레인에서 베일을 쓴 여인들, 노천 시장, 부와 사치가 고대의 사막 생활 방식과 대조를 이루는 등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속에서도 말일성도 이웃의 따뜻한 친근감을 발견했다. 서방에서 온 다른 세 가족과 함께 우리는 매주 교회 모임을 갖는 여덟 명의 어른과 여덟 명의 어린이 단체의 일부였다. 집회는 회교도 국가에서 금요일에 열리고 있는 데 그것은 금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일요일은 그들에게는 육일간 일하는 일주일의 둘째 날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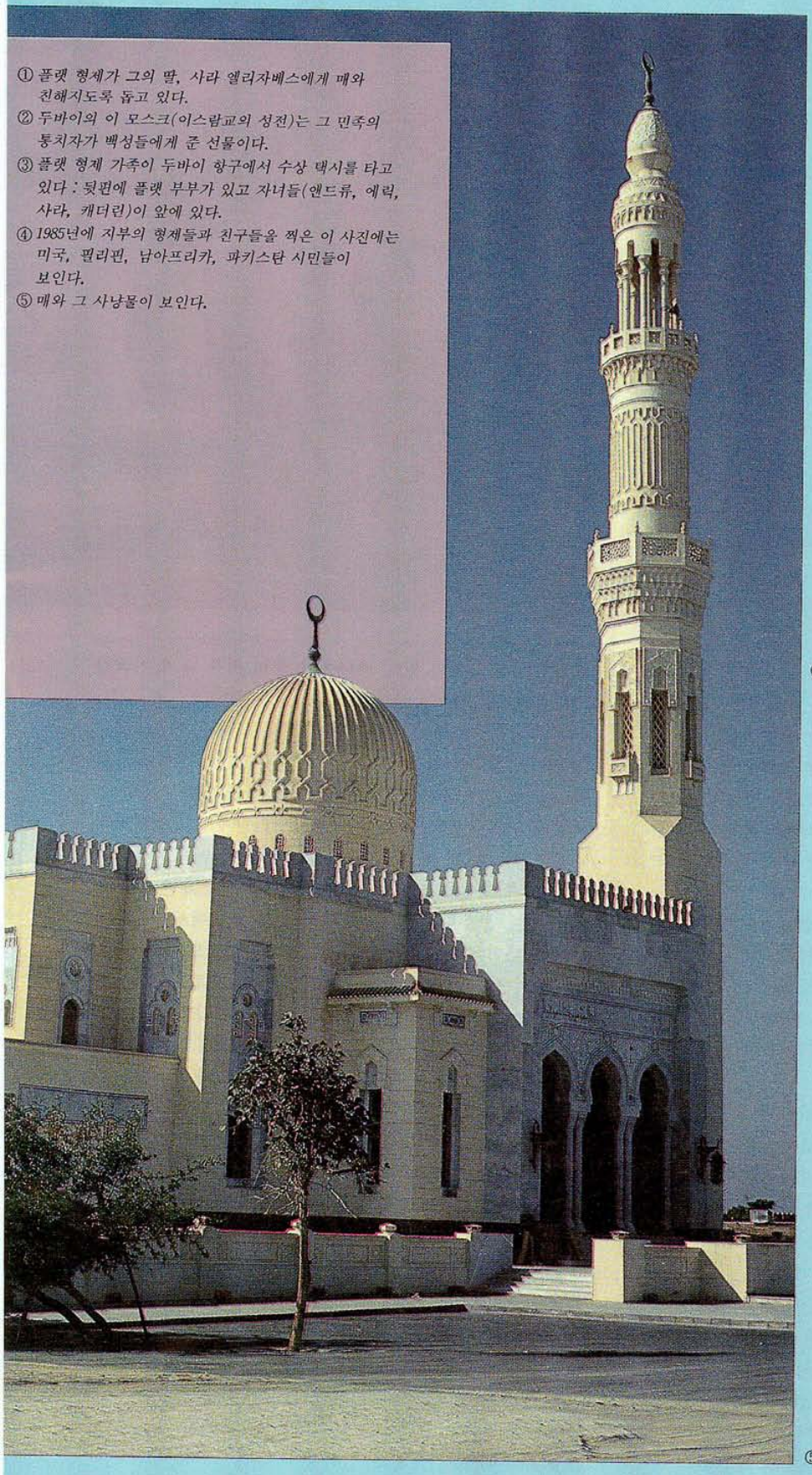
바레인에 있는 그 단체는 1978년에 지부로 조직되었으며 뉴멕시코 태생의 시드니 매길 형제가 첫 지부장이 되었다. 다른 말일 성도들의 도착과 더불어 그 이후 그 지부는 서른 다섯 명의 회원으로 늘어났다.

바레인에서 오년 이상 생활한 후 아내와 나는 내가 그곳에서 설립한 매 사육 센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성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 데 두바이에서 비슷한 직책을 제공받았다. 두바이는 아라바아 반도에서 훨씬 더 남쪽에 있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에 속한 지역이었다. 나의 고용주는 나의 행운을 빌어주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바레인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며 두바이로 보내 드리겠읍니다."

두바이 야생 생물 연구 센타에서 쉬크 모하마드 빈 러쉬드 알 마톰 폐하의 야생 생물 자문으로 맡은 그 직책으로 인하여서 나는 훨씬 더 광범위한 동물들에 대한 연구를 할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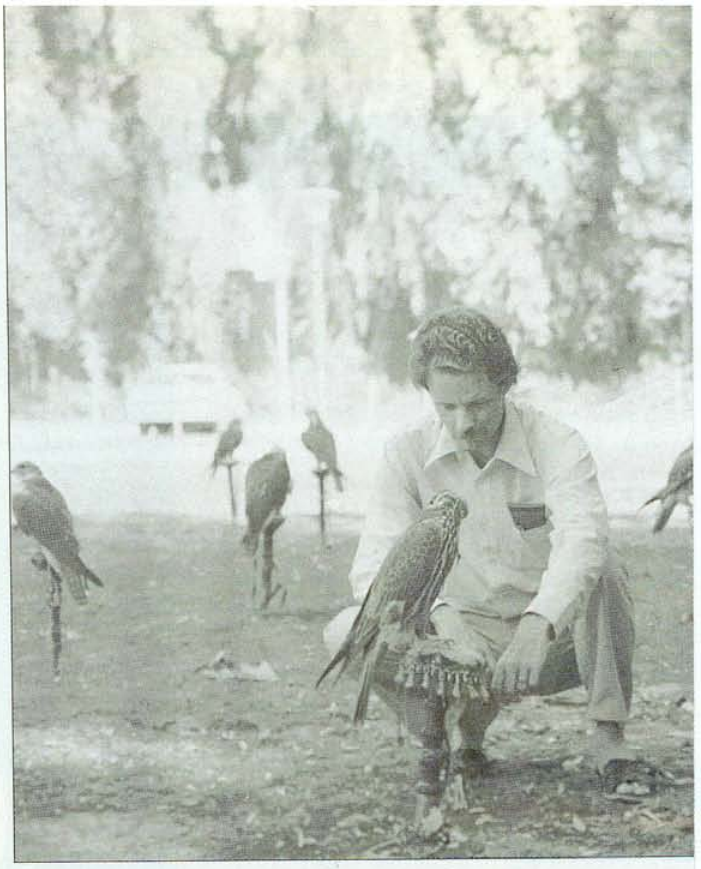
① 플랫 형제가 그의 딸, 사라 엘리자베스에게 매와 친해지도록 돕고 있다.
② 두바이의 이 모스크(이스람교의 성전)는 그 민족의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준 선물이다.
③ 플랫 형제 가족이 두바이 항구에서 수상 택시를 타고 있다 : 뒷편에 플랫 부부가 있고 자녀들(앤드류, 에릭, 사라, 캐더린)이 앞에 있다.
④ 1985년에 지부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찍은 이 사진에는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파키스탄 시민들이 보인다.
⑤ 매와 그 사냥물이 보인다.



③

④

⑤



전문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바레인과는 달리 두바이는 극히 최근에야 기름으로 또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돈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1968년에는 포장도 되지 않았던 도로들이 지금은 연도에 수많은 궁전이 늘어서 있고 바다로부터 끌어 올려 증류시킨 물로 키운 관목과 꽃이 몇 마일씩 길가에 심어져 있다.

그러나 옛날 방식도 잊혀지지는 않았다. 족장들이 아직도 백성들과 접하고 있다. 일주일에 여러번 나의 고용주는 그를 볼 필요가 있는 이십 명에서 오십 명까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든지 오찬을 베풀곤 한다. 우리는 마루 바닥에 앉아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손님 중에는 베두인 목자도 있고 백만장자 상인도 있다. 모두 같은 옷을 입었으며 또 대단히 정중한 태도를 보인다. 족장의 손님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은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또는 단순히 그들의 충성심을 표현하러 올 수도 있다.

1982년 우리가 두바이에 도착했을 때는 말일성도 예배는 전혀 없었다. 우리는 그곳에 세 명의 말일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사람은 미국에서 온 자매이며 두 명은 필리핀 형제들이었다. 우리 방 거실에서 성찬식이 시작되었다. 우리 아이들은 일년 동안 우리들이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에게 왔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십 팔개월도 안 되었을 때 새로 이사 온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지부 회원이 스물 네 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1985년에 그 작은 지부는 서른 여섯 명의 회원으로 늘어났다. 우리는 미국 학교의 한 구역을 빌려서 집회를 했다. 우리 지부는 우리 연령 그룹을 위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세미나리, 아침반을 포함해서 다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 온 그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 자기 방식 대로 예배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도 사업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때때로 개종자가 있으니 그들은 서방 세계에서 온 근로자의 일부로 회원인 가족의 비회원 배우자가 개종하는 경우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선박과 기타 고대의 해양선을 영접했던 페르시아 만의 바다물이 우리 지부 내의 이러한 사람들과 또 자녀의 침례탕이 된다.

우리의 큰 두 아이 캐더린과 앤드류는 아주 어렸었던 1976년에 우리와 함께 바레인으로 이사갔다. 그때 이후로 우리 가족은 바레인에서 태어난 에릭 알칼리화와 아랍 에머레이트 연맹에서 태어난 사라 엘리자베스로 늘어났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반도에서의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불리한 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여인들은 이 반도 위에 있는 다른 일부 국가에서 온 사람들보다 두바이에서 제약을 적게 느끼지만 회교도 전통에 충실한 대부분의 원주민 여인들은 자유 분방하게 이런 혼합된 무리에 뒤섞이지 않는다. 일부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이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회교도 가족 제도는 강하다. 그 제도는 그들에게 대단히 훌륭한 작용을 하지만, 또한 외국인들이 아랍 가족을 잘 알 기회에 제약이 되기도 한다.

교회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이 아랍 국가에 사는 수 많은 다른 외국 가족들과 친구가 된다.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원주민의 비율은 극히 적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앤드류의 지난번 생일 파티에 참석한 열 명의 어린이들은 여덟 개의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었다.

이곳의 교회 회원들에게는 각종 시험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육일간 일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만에서 잠수 등과 같은 레크레이션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식일에 그들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고대의 매 사냥 스포츠에 현대의 경영 기법을 도입한 플랫 형제가 횃대에 앉은 훈련 받은 매 떼를 살펴 보고 있다.

우리 자녀와 (또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친구들 사이에서 풍요에 따르는 문제로 시달린다. 캐더린은 무료로 궁전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니도록 선택된 팔십 명의 소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 학교는 자기 딸들이 서구식 교육을 받게 하기를 원했던 황태자가 세웠다. 그 학교의 교직원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며, 개인 전용 제트기로 구라파로 일 개월 동안 수학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립 학교와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곳의 회원들은 세상의 수 많은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이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슬람이나 이슬람 신자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어떠한 활동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마약과 알콜 남용과 춘화와 부도덕한 것은 그러한 것이 회교 신앙에 거슬리기 때문에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일부 사람에게는 제약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그 법률이 베푸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추악한 영향력과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으며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그러한 것과 접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생활하는 말일성도와 기타 외국에서 온 직장인들은 매일 자신의 생활이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텔레비젼과 기타 활동은 오후와 저녁 때마다 기도하라는 신호로 중단된다. 공공 집회는 코란을 읽는 것으로 시작된다. 회교도들이 예언자 무하마드가 받은 계시라고 믿고 있는 이 책은 이 지역 국가들의 모든 법률의 기본이며 일상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친절한 영접은 이슬람의 근본 원리에 속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직업상의 접촉에 있어서 아랍 사람은 손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표명하며 또한 그들이 그가 제공한 커피나 차를 함께 마시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예절 때문에 나는 아랍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은 궁전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으로부터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는 낙타를 키우는 목자들까지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들은 내 믿음이 돼지고기와 알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건강 법칙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항없이 나의 믿음을 받아들인다. 엄격한 회교도들은 또한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

한번은 나의 고용주의 요청에 나는 그와 함께 다른 회교도 국가의 통치자를 방문하러 갔었다. 우리는 소수의 족장들과 정부 관리들과 함께 했다. 우리는 궁전에서 식사를 하고 그 통치자의 개인 휴양지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 한번은 식사하는 도중 몇 명의 회교도들이 포도주를 주문했다. 내가 거절하자 어떤 사람이 내가 회교도 되는 것에 대해서 농담을 했으므로 나는 나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나에게 그들과 함께 마시자고 청했다. 당시에 나를 고용하고 있었던 바레인의 황태자 폐하가 그들을 잠잠케 하고는 나를 보면서 "조, 결코 신앙을 바꾸지 마십시요."라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나의 고용주들이 내 신앙에 대한 인정을 해 주는 것을 감사해 왔다.

고국의 낯익은 여러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면서 그곳의 소수 집단에 속하여서 외국 문화권의 손님으로 생활하는 교회 회원들은 자신이 동떨어져서 혼자라는 느낌을 갖기가 쉽다. 그러나 교회는 거의 어느 곳에나 있다. 가족이 있거나 없거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 복음 원리의 효율성 또 성신의 성역은 예배드리는 무리의 규모나 그 주변 환경에 의하여서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 위안이 될 것이다. 자기 가정을 집회소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영이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

이 기사가 씌여졌을 때 플랫 형제는 두바이 지부의 지부장이었다.

카발로 형제는 자신이 영과 일치할 때는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게 되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굉장히 복잡한 법정 소송이 한 번 있었는 데 그때 그는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읍니다. 나는 해당 법률은 알고 있었으나 혼란이 왔읍니다."라고 회상한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였으며 그 문제를 분명하게 규정짓는 법률의 어떤 특별한 부분이 마음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나중에 한 법조인이 그 판사가 핵심을 그렇게 본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발로 형제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읍니다."라고 말한다.

리스본 제이 와드 회원들은 알터 벤투라 데 카발로가 또 다른 면에서 판사라고 생각한다. 그는 바로 그들의 감독이다. 감독 부름은 그가 1979년 중반에 침례를 받은 이래로 두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보좌로 일한 것을 포함해서 그가 받은 많은 지도자 부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해 봄에 선교사들이 그의 문을 처음 노크했을 때는 앞으로 감독이 될 것 같은 가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선교사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어떤 하나님 말이오?"라고 대꾸했다. 그것은 불신자의 질문은 아니었으나 여러 교회에 대하여 연구했으나 왜 가장 높으신 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념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했을 때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 귀를 기울였다.

카발로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와 그의 부인 어느 쪽도 그 나라에서 우세한 교회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 두 사람 다 진리를 찾았으며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직접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물리적인 육신을 갖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또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옛날 그리스도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도와 예언자들이 있는 회복된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다.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르투갈에서 지혜의 말씀 대로 생활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카발로 감독은 가끔 사교적으로 술마시던 것을 포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미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십일조로써 주님의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협력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카발로 감독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가족 출신은 아니었으며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좀더 나은 부모와 배우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했읍니다. 때때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 때 내가 얼마나 피곤한가 하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흔히 있었읍니다. 나에게 복음은 길을 보여주는 빛과 같았읍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나의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읍니다."

카발로 감독은 이제는 자기 아내와 두 자녀의 지지 없이는 자신의 수많은 일과 교회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성전 사업이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스위스 성전에서 인봉자로 부름받게 된 것을 큰 축복이라고 말한다. 그는 포르투갈 성전 방문 단체와 함께 스위스로 여행할 때 그 부름을 행한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의 영감받은 종들의 인도 하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한 명예입니다."

감독으로서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회원에게 복음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함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카발로 감독은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다. *

방문 교육 메시지

사랑은

간악함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며(모로나이서 7 : 45)

목적 :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

사도 바울과 선지자 모로나이는 "사랑은 간악함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더불어 기뻐"한다고 말했읍니다.(고린도전서 13 : 4~6; 모로나이서 7 : 45 참조) 우리는 이 생애는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읍니다.(니파이이서 2 : 11) 그렇지만 왜 바울과 몰몬은 간악함과 진리를 대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읍니까? 왜 그들은 "사랑은 간악함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함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전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읍니다. 교리와 성약 93편에서 우리는 "빛과 진리는 저 악마를 버리느니라"(37절) "저 사악한 자는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39절)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간악함이 커지게 되면 진리가 죽습니다. 진리가 번영하면 간악함이 권세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은 빛과 진리를 얻게 되며(교성 93 : 28 참조) 좀더 그리스도같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진리의 빛"(교성 88 : 6)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성 93 : 36)라고 말해 줍니다.

진리를 찾고 간악함을 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텔레비젼이나 영화나 책에서 간악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도 역시 간악함에서 기쁨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읍니다. 어떤 여인은 자기 가족에게 비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읍니다. 그 특별한 날 그녀의 열살된 아들이 동생을 "계집애 같은 자식"이라고 불렀읍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십대 자녀를 "골치덩이"라고 불렀읍니다. 그녀 자신도 자기 딸이 깨끗하게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너는 내가 시키면 한번에 순종하지 않니? 아무 것도 똑바로 할 수 없니?"라고 말하며 꾸짖었읍니다.

그 여인은 혼자서는 자기 가족 내의 관계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경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녀는 자기 가족을 자주 칭찬해 주었읍니다. 가족 기도를 할 때에는 가족 각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공헌하고 있는 바를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렸읍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 더 긍정적이 되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읍니다. 몇 주일이 지난 다음 자신의 노력이 효력이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가족원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조금씩 버리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돕는 일을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었읍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부족함에 대하여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으며 또 가장 사랑과 우정 증진이 많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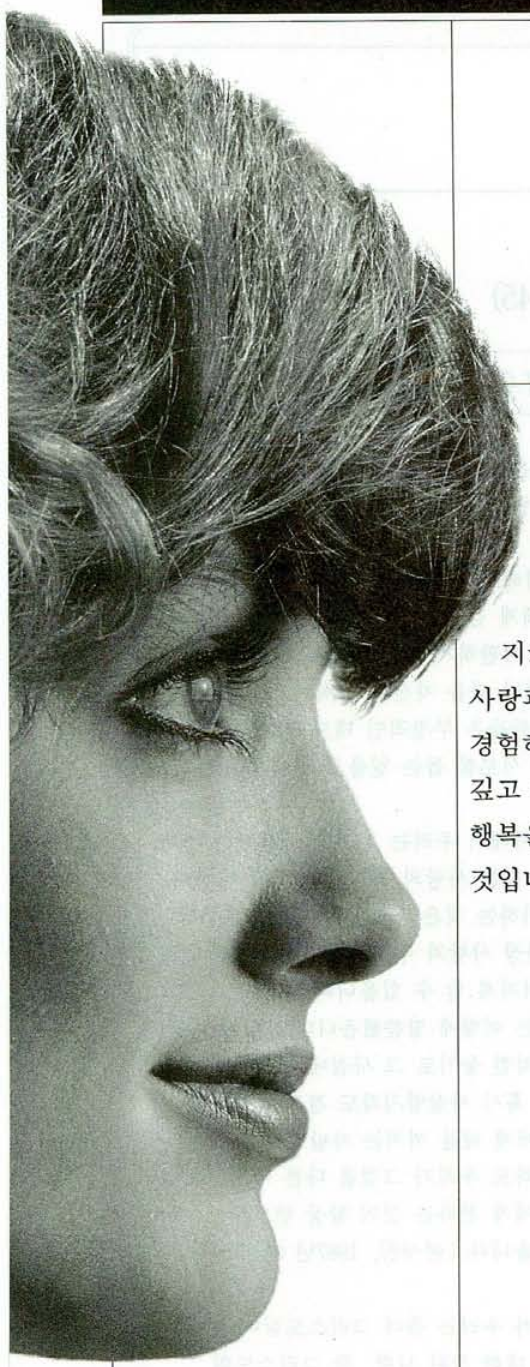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비록 어떤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악한 동기로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혹시 사실일지라도 결점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형제나 자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비록 어떤 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혹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항상 반드시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읍니다.(*엔사인*, 1987년 6월호, 69페이지)

진리를 받아 들임에 따라 우리는 좀더 그리스도같이 되며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에 대한 참된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느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가 간악함을 기뻐하는 것을 삼가하고 또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의한다.
2. 다른 사람을 북돋아 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진리를 사용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방문받고 있는 자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도록 청한다.

(가정의 밤 자료집 15, 257~59, 265~320페이지를 관련 자료로 참조한다.)



순결의 법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키면 더욱 큰 사랑과 화평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깊고 의미있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에서 하신 영적인 말씀에서 발췌한 것임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시 말씀하셨읍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와 비슷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교성 59 : 6) 태초로부터 주님께서는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분명하고 추호의 그릇됨이 없는 표준을 설정하셨읍니다. 그것은 항상 똑같았으며 지금도 같고 또 앞으로도 항상 같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순결의 법입니다. 이것은 남녀, 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몰몬경에서 예언자 야곱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의 순결을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말하고 있읍니다.(야곱서 2 : 28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할 때 그냥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순결을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몰몬은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순결과 덕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며 고귀한"(모로나이 9 : 9)것이라고 적어 똑같은 것을 가르쳤읍니다.

순결의 법은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음성의 영향을 받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표시하신 길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발길을 굳건하게 세워 놓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모든 도덕적인 표준을 버린 결과를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한 예로서 보건 관리들은 만일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치료책이 빨리 발견되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어서 흑사병, 천연두, 장질부사 등과 같은 옛날의 의학적인 재난은 하찮은 것 같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원래 널리 퍼진 동성애를 통하여 시작된 이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전 세계가 찾고 있는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 둘러 보면서도 주님의 법은 살펴 보지 않습니다. 공공 보건 기관이나 사립 보건 기관은 많이 있어서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맞서 싸우고 있읍니다. 그들은 연구 조사에 더 많은 기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읍니다. 그들은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무지한 사람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이미 감염된 사람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이며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치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결한 상태로 되돌아갈 것을 또 덕성과 충실스런 상태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말은 별로 듣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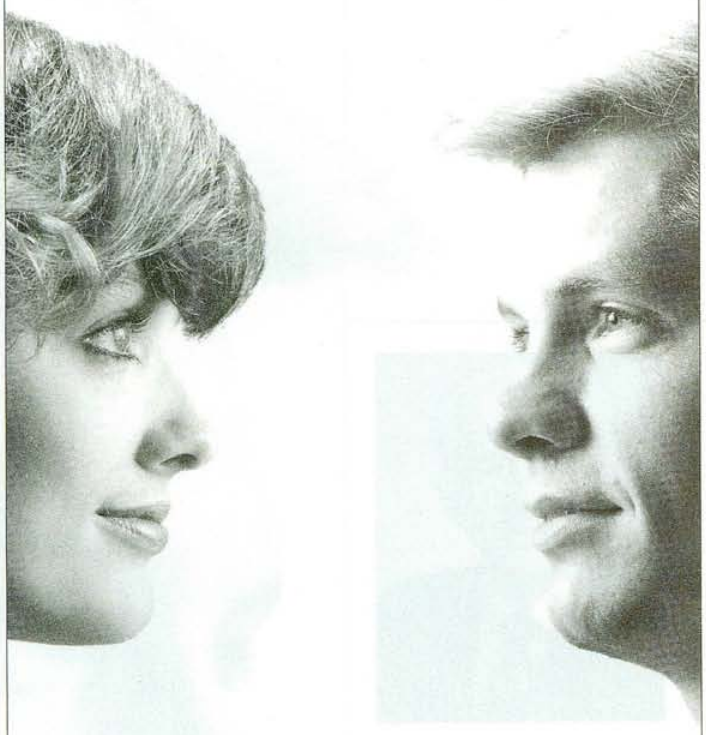
부도덕으로 꾀임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로써 성적인 범죄로 빠져들어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가치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생애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자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조장하여 부도덕한 상태로 유혹합니다. 그는 쾌락과 행복과 성취감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잠언의 저자가 쓴 그대로입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잠언 6 : 32) 레이맨인 사무엘은 똑같은 것을 이렇게 가르쳤읍니다. "너희가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이의 뜻을 거스려 간악함을 행하며 행복을 구하였음이라"(힐라맨서 13 : 38) 앨마는 이것을 보다 더 단순하게 말했읍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앨마서 41 : 10)

사탄의 거짓말에 잘못 이끌려 가지 마십시요. 부도덕에 영구한 행복은 없읍니다. 순결의 법을 깨뜨리는 일에서는 어떠한 기쁨도 찾을 수 없읍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순간적인 쾌락도 있을 수 있읍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 관계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죄의식과 수치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발각될까 두려워 합니다. 살금살금 도망쳐서 숨고, 거짓말하고 속여야 합니다. 사랑은 죽어가기

주님께서는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분명하고 추호의 그릇됨이 없는 표준을 설정하셨읍니다. 그 기준은 순결의 법입니다. 이것은 남녀, 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덕스럽겠다는 결정은 단 한번만 결심하면 됩니다. 지금 그 결심을 하십시오. 또 결심을 극히 굳건하고 깊이있게 단호하게 함으로써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악한 감정, 질투, 분노 심지어는 증오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범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는 사소한 것이며 그 결과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으로 잘못 인도되어서는 안됩니다.

덕의 한 가지 표준

순결에 대한 가장 엄숙한 말씀의 하나로 앨마가 그의 아들 코리앤톤에게 한 말씀이 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의 아들아, 네가 범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거스리는 일 다음으로 *가장 가증한 일*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앨마서 39 : 5) 우리 가운데 살인 죄를 범하거나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범할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의 법은 흔히 깨뜨려지며 그런데도 이 법은 주님 보시기에 그 심각성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죄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전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성적인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이 법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읍니까? 나는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덕과 순결에는 한 가지 표준이 있으며, 모든 사람은 이것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끊임없이 덕을 쌓으며 내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하느니라"(교성 46 : 33)

고치고 뉘우치기 보다는 대비하여 예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속담이 있읍니다. 이 말씀은 순결의 법에 비추어 참으로 진실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첫번째 방어선은 우리 자신이 유혹에 저항하도록 준비를 갖추고 우리 자신이 죄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청결한 사람들에게 준비와 예방의 단계인 여섯 단계, 즉 절대로 이러한 범법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 줄 여섯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순결하도록 지금 결정함.

순결하고 덕스럽겠다는 결정은 단 한번만 결심하면 됩니다. 지금 그 결심을 하십시오. 또 그 결심을 극히 굳건하고 깊이있게, 단호하게 함으로써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요. 순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요. 지금 결정하십시요!

2. 자신의 생각을 통제함.

어떤 사람도 한 순간에 부도덕으로 빠져 들지는 않습니다. 부도덕의 첫번째 씨앗은 언제나 마음 속에 뿌려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조작하거나 부도덕한 것에서 떠나지 못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부도덕을 향한 첫걸음을 이미 내딛은 것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특히 춘화의 악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깊은 죄에 빠져든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범법으로 가는 길에서 첫걸음은 춘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읍니다. 구세주께서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욕정을 품고 쳐다 보거나 또는 그의 생각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이미 마음 속으로 그녀와 간음을 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읍니다. (마태 5 : 28 ; 교성 63 : 16 참조)

3. 언제나 유혹에 저항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함.

유혹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올 것입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며 수많은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읍니다.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받드는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성 10 : 5)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끊임없는 힘을 주시도록 주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유혹은 순결의 법이 관련된 유혹을 말합니다.

4. 결혼한 경우 어떤 형태로든 다른 여성과 유희하는 것을 피함.

어떤 문화권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한 남녀가 때때로 이성과 유희하거나 장난질 치는 것이 용납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무해한 모임이 준비되기도 하며 혹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 것은 우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함으로써 합리화 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해롭지 않아 보이는 장난질을 치거나 단순히 조금 재미있게 노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너무나 쉽사리 심각한 관계로 빠지게 되며 마침내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충실하게 될 수 있읍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 볼 훌륭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면 기뻐할 것인가? 남편이 비서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면 부인이 기뻐할 것인가? 부인이 다른 남자와 희롱하는 것을 보면 남편이 기뻐할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 : 22)

5. 결혼한 경우 가능한 한 다른 이성과 단 둘이 있는 것을 피함.

부도덕이라는 비극 가운데 많은 것은 남자나 여자가 사무실이나 교회나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 단 둘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의도도 없으며 심지어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없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유혹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것에서 또 다른 것으로 이끌려 가며 너무나 빨리 비극이 생겨날 수 있읍니다. 유혹이 발전할 기회를 갖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6. 독신으로서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애정을 나누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자신이 버려지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주의깊게 계획하십시오.

역시 이것도 부정적인 것이 자라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인 활동으로 가득 채우는 원리입니다. 젊은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된 활동없이 두 사람만 있게 될 때에는 그 허전한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육체적인 접촉으로 들어설 수가 흔히 있읍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이미 너무 늦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미 심각한 죄에 빠져들어 있을 수도 있읍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와서는 자신의 생활을 고치고 죄를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것을 제언하고 싶습니다.

1. 죄를 짓도록 인도하거나 또 죄를 짓도록 인도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 나십시오.

애굽의 요셉이 집안에서 보디발의 부인과 단 둘만 있는 상황에 빠졌을 때 다음과 같이 합리화하기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가 그 여자를 충동시키지 않았읍니다. 그는 그녀의 하인이었읍니다. 만일 거절하면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등등… 만약에 요셉이 그곳에 머물렀다가 합리화하였다면 쉽사리 죄에 빠져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때 대응한 방법은 큰 교훈이 되고 있읍니다. 경전에서는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창세기 39 : 12)

그는 도망하여 나갔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자신의 도덕적인 순결이 이렇게 타협이 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요셉의 본보기를 따르십시요. 그곳으로부터 도망하여 나가십시요.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2.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주님에게 간구함.

사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 사람에게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한 가지는 그들의 귀에 대고 그들은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며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죄의 권세는 큽니다. 만약에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특히 심각한 죄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면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더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원하시는 분은 없읍니다. 그분에게 가십시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수치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도와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요. 그분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도와 줄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3. 신권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도와 범법을 회개하고 주님과 완전한 우정 관계를 맺도록 돕게 함.

어떤 죄는 너무나 중대해서 우리의 교회 회원 자격 자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성적인 죄는 그러한 심각한 죄의 하나입니다.(교성 42 : 24 참조)

그러한 죄를 완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해결할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신권 지도자를 통하여서 행해집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은 계시에 의해서 교회를 살펴보는 파수꾼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판사로 봉사하도록 지명받고 있읍니다.

주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반면에 신권 지도자들은 회개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회원 자격을 정지 당하거나 파문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는 발걸음이며 이 과정을 더 빨리 시작할수록 더 빨리 용서가 낳는 기적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감미로운 화평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4. 거룩하신 샘물을 마시고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인 권세의 원천으로 가득 채움.

악에 저항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생활에 죄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을 또한 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져다 주는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그러한 활동을 우리 자신이 경전에 깊이 잠기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경전을 읽고 연구할 때 다른 방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권세가 우리의 생활 속에 흘러 들어 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큰 권세의 원천입니다. 구체적인 힘이나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읍니다. 기독교인다운 봉사, 교회 참석, 왕국에서 봉사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힘과 권세의 창고에 덧붙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할 생활을 하도록 힘과 결단으로 가득 채워주는 의로운 활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5. 적절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깨끗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

모로나이는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도다"(모로나이서 10 : 22)라고 가르쳤읍니다. 부도덕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망의 처참한 영향을 경험할 수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있읍니다.

참된 회개에 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다시 깨끗해 질 수 있읍니다. 그러한 절망을 없앨 수 있읍니다. 용서의 감미로운 화평이 여러분의 생활에 흘러 들어 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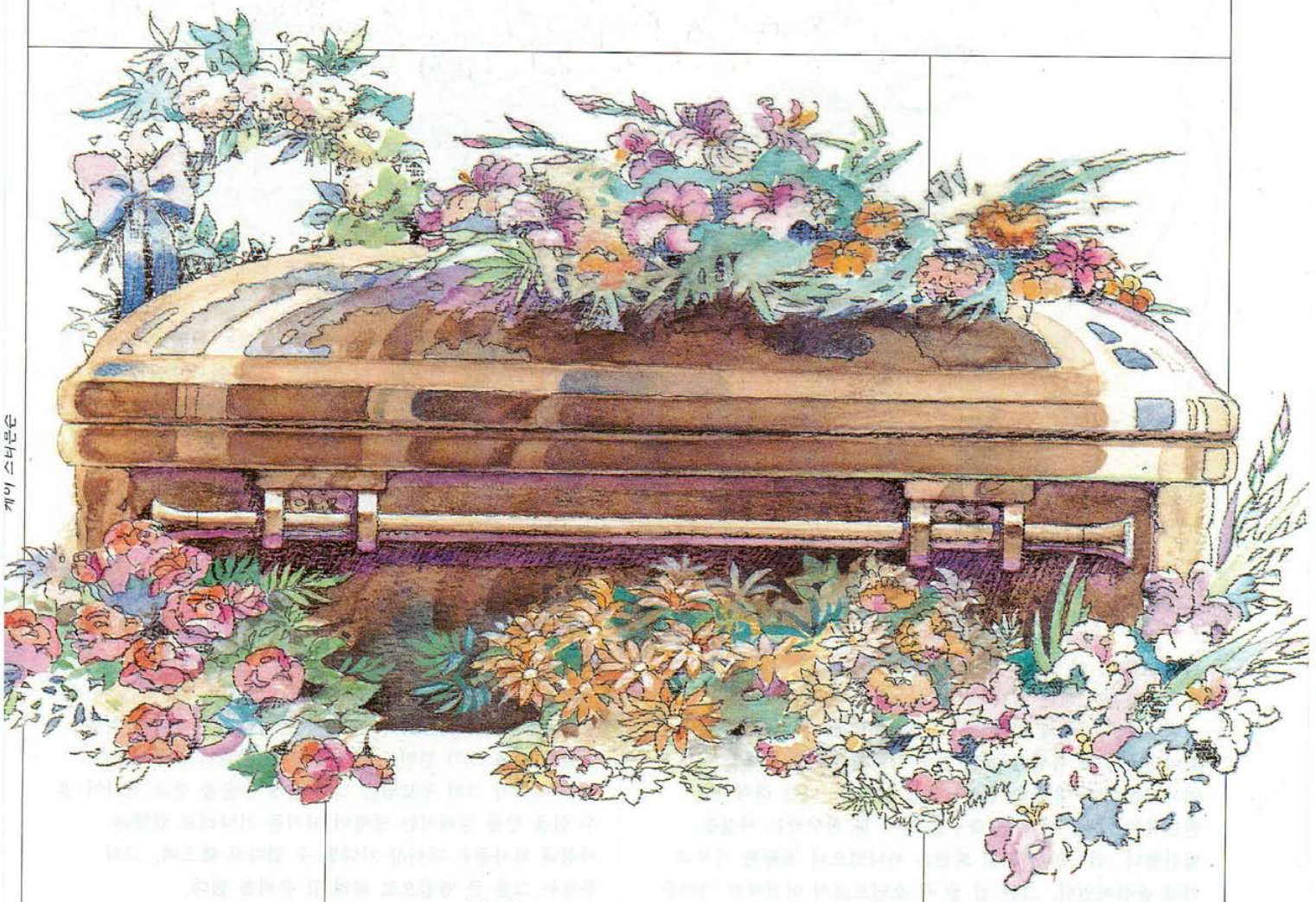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이사야 1 : 18)

또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똑같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 : 4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결의 법에 관해서는 고치고 회개하는 것 보다는 대비하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복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찾아내도록 도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원리 중의 하나가 순결의 법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킬 때 따르는 기쁜 결과를 또한 이것을 위반할 때 따르는 비극적인 결과를 엄숙하게 깊이 생각하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

죽음으로 친구를 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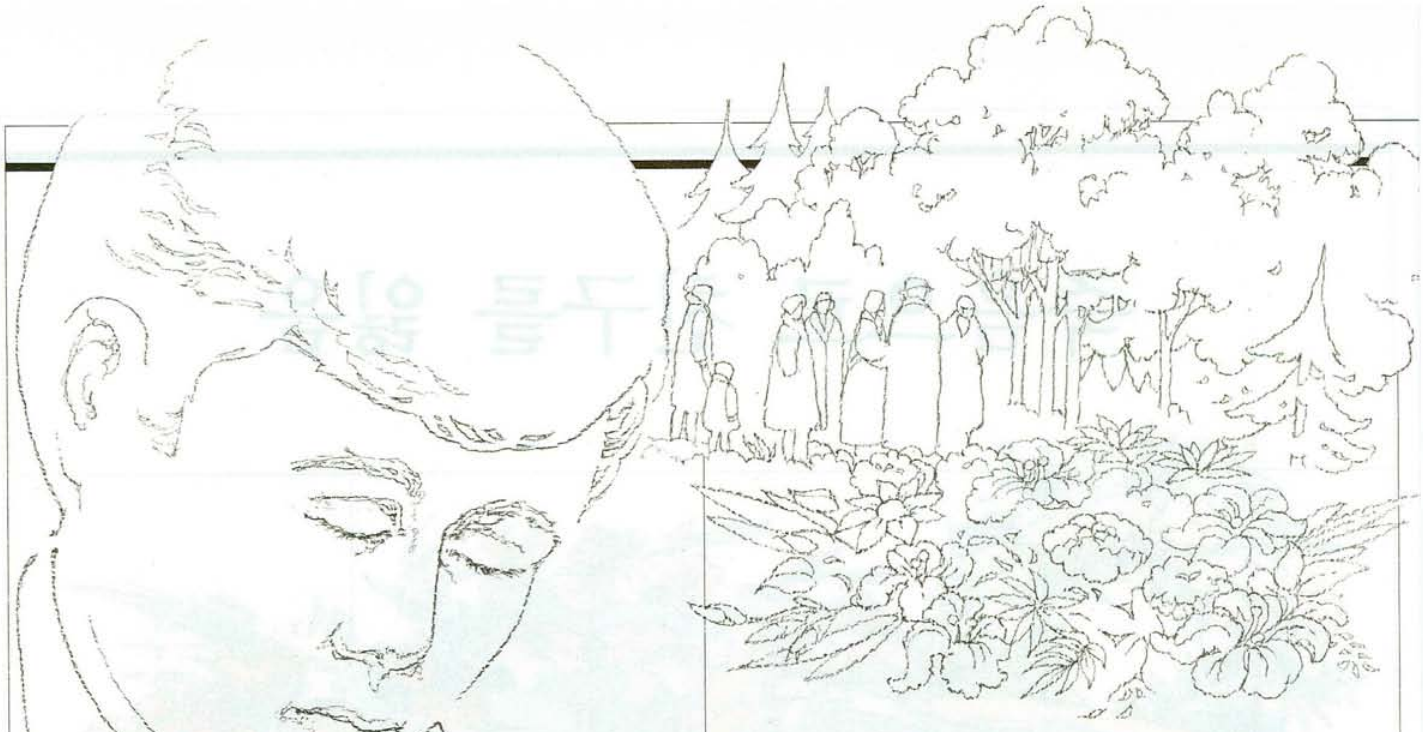


친구가 죽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위안받을 수 있다.

근존 베티 피쉬

근래에 나는 앤드류라는 열 두 살된 소년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했다. 그는 최근에 집사로 성임 받았었다. 그는 착한 소년이었으며, 그의 친구들이 사방에서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왔다.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거나 같이 축구를 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을 같이 했던 비회원이었다. 앤드류에게는 형도 한 사람 있었으며 남동생도 하나 있었다.

어린 십대 소년에게 죽음이 닥칠 때 그것은 대개 예상 밖의 일이다.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경고받는 일조차 없을 수도 있다. 앤드류는 해변가의 모래 언덕 옆구리에 파여진 동굴 안에서 놀고 있었다. 그 모래 벽이 무너져서 질식사했다. 그의 사촌과 친구들이 그를 파낼려고 미친듯이 노력했다. 그 일은 그의 형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경험이었다. 그의 형도 무너져 내리는 모래 속에 몸의 일부가



파묻혔었다. 이 일이 그들의 부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앤드류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그 장례식에서 관 옆에 모여들었을 때 특별한 어린 친구 라이안은 앤드류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는 라이안과 앤드류는 약 삼 년 동안 축구를 같이 한 친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라이안은 교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훌륭한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다. 그는 십 삼 세 소년으로서 이전에는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할 때 닥치는 죽음의 실제를 한 번도 직면한 적이 없었다.

라이안은 소리내며 울고 있었다. 그는 매우 가까운 친구를 잃은 것이다. 그는 그를 꼭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위로를 받았다. 앤드류의 아버지도 역시 라이안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해 주었으나 그는 결코 위안받을 수가 없었다. 친구를 상실한 것은 그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일은 나 자신의 생애에 있었던 비슷한 경험을 생각나게 해 주었다. 약 삼십 년 전 피터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장난감, 애완 동물, 음식 등 거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며 놀았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달랐다. 그는 금발 머리에 그의 아버지처럼 키가 작았다. 나는 키가 크고 여위었으며 아버지처럼 머리는 검은 색이었다. 그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했고 나는 쵸코렛을 좋아했다.

피터와 나는 가까운 개천에서 바위와 모래 아래 커다란 "오두막집"을 지었다. 그곳은 뱃가죽이 파란 조그만 경주용 도마뱀을 잡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이었다. 피터와 나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뛰어난 도마뱀 잡이였다. 우리는 나의 큰 형 두 사람보다도 더 잘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열 살 가량 될 때 까지도 나는 피터에게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천식이 있었으며 가끔 기침을 하고 그 때문에 헐떡거렸으나 그것이 우리가 노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그가 한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까지 그의 부모님은 그가 심장 수술을 받고 견디어 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연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의사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으며, 그의 부모는 그를 큰 병원으로 데려 갈 준비를 했다.

그는 나에게 편지로 수술실과 회복실을 포함하여 모두 둘러 보기 위하여 그 병원에 미리 가 보았다고 했다. 의사들은 그가 수술에서 깨어날 때 놀라거나 겁먹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상세히 보여 주기를 원했다.

며칠 후 피터는 여덟 시간 내지 열 시간이나 걸리는 큰 수술을 받았다.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수술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나는 그의 심장이 치유되기를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었다.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크게 상심하여 장례식이 끝난 다음 우리가 강가에 세워 놓았던 그

오두막집에 마지막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그곳에 잠시 있다가 그 바위들을 옆으로 밀어 젖히고 그 작은 건물을 부셔버렸다. 아마 그때 피터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또 그때 내가 겪고 있었던 너무나 참담한 감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후에 나는 그런 감정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피터를 사랑했다. 나는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것은 자연적인 본능이며 결코 아무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앤드류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인생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생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잊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준다. "너희는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 그리하여 저들이 죽어 저들을 잃게 되었을 때 눈물흘리며… 슬퍼하라"(교성 42 : 45)

약 한 달 남짓 동안 나는 매일 피터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는 다른 친구들과 정신없이 어울리기 시작했으며 또 가끔 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약 십 년이 지난 후 나는 몇 달이 지나도록 우리의 그 친밀한 우정에 대하여 한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그렇게도 그와 함께 느꼈던 그 좋은 느낌들이 모두 다 나의 마음과 가슴으로 다시 밀려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터가 죽은지 거의 삼십 년이 지난 후, 일 이 년 전에 꿈을 꾼 일이 있었는 데, 업무상 출장을 가서 잠을 자다가 바닷가에 나 있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차를 운전해 가는 꿈을 꾸었다. 나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꿈속에서 나는 아름다운 해안의 경치에 감탄하며 자동차의 라디오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갑자기 꿈 속에 길 반대 편에서 피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었으나 나는 곧 그를 알아보았다.

나는 즉시 차를 멈추고 내려서 그를 향하여 달려갔다. 우리는 행복한 두 어린 소년처럼 끌어안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거대한 대양을 배경으로 하여 팔장을 끼고 얼굴을 마주보고 서서 약 15분 동안 대화에 열중했다.

죽음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만나서 기쁘다"라든지 그와 비슷한 말은 일체 하지 않았으며 피터가 마침내 "자, 이제 그만 가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면서 그에게 "어디로 가니?"하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좀 일할 것이 있어"라고 말했다. 나는 더이상 묻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가슴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었다. 나는 그것이 앤드류에게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꿈속에서 그가 죽은지 여러 해가 지난 후 다시 그를 만나서 포옹하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홀륭한 느낌을 받았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피터와 내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며 그 만나는 일은 그 멋진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감미롭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리라는 것을 영이 나에게 증거해 주었다.

앤드류의 장례식에서 단상에 서 있는 동안 영은 나에게 죽음은 우리의 친분이 끝이 아니며 우리의 사랑과 우정의 느낌은 무덤 저쪽까지 지속되리라는 것을 라이안에게 말해 주라고 속삭여 주었다.

나는 라이안이 벤치 위에서 조금 더 자세를 바로하며 앉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의 물기가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그가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나의 영의 눈이 라이안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음으로 친구를 잃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지식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생이 무덤 저편에서 계속되며 그곳에는 이미 간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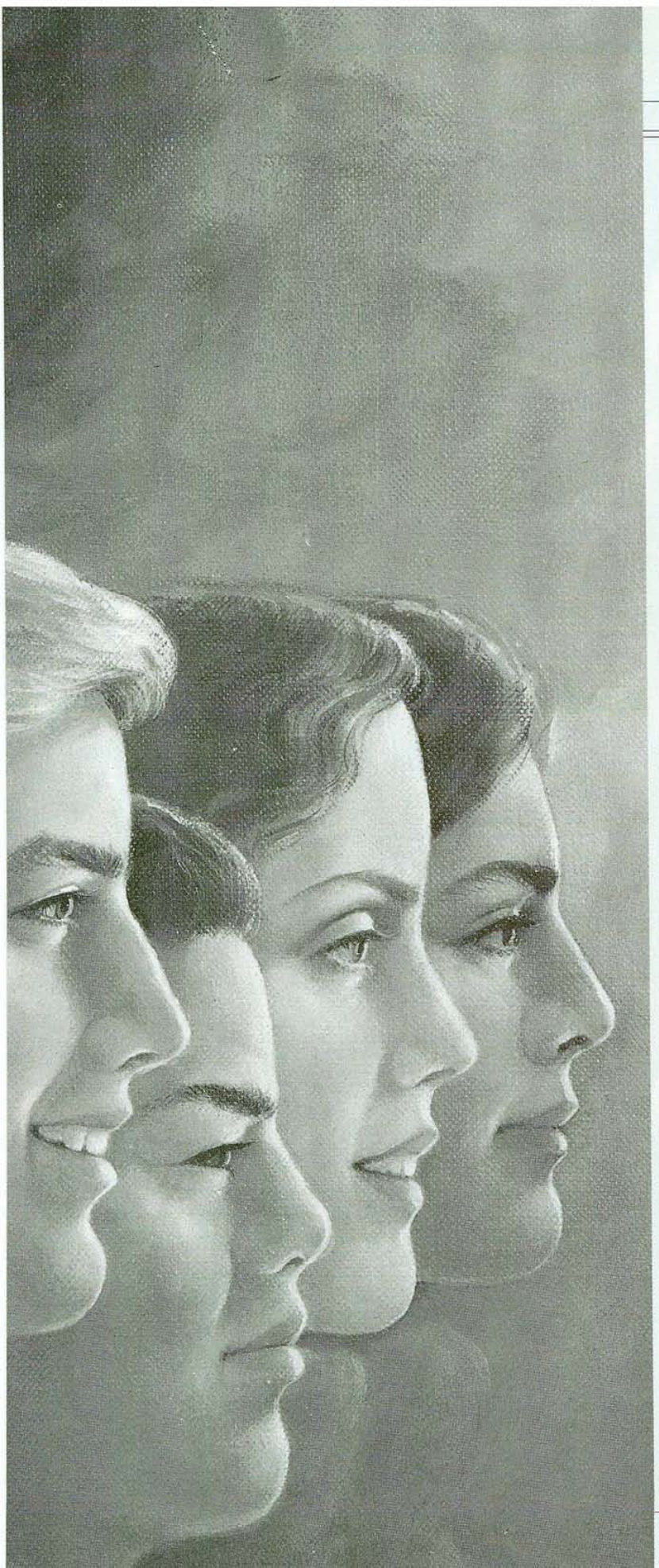
젊은이 여러분은 계속해서 충실해야 한다. 올바른 일을 행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은 친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일이 닥칠 것이다. 그러한 슬픔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위안해 주시며 마음의 상처는 마침내 없어질 것이다. 인생을 함께 보내며 함께 했던 그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할 때 언젠가는 그런 추억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

험담
퍼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의 증인임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식 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왈도 피 콜 장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태 28 : 19) 우리 시대에 그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온



"너희가…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 : 8)

세상에 나가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을 행사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생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교성 68 : 8) 주님은 스펜서 더블유 킴볼 대관장을 통하여 모든 젊은이는 선교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모든 젊은이는 좀더 잘 준비되고 보다 더 합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 몰몬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좀더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세리기오는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젊은이였읍니다. 그는 집에서 300킬로미터 떨어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정규적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에 합당하다고 느끼지 못했읍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대학에서 나쁜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들었다고 말했읍니다. 세리기오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몰몬경을 읽으라는 권고를 받았읍니다. 그는 그대로 했으며 몇 달 되지 않아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그와 그의 지도자들은 그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느낌을 받았읍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서 매우 훌륭하게 봉사했읍니다.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는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읍니다. 어떤 젊은이의 부모님은 그가 듣는 음악을 조심해서 선택하도록 권고했읍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좋은 음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이 말씀한 것을 들었읍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가서 레코드 판을 분류해서는 한 뭉치를 쓰레기통으로 가져가 깨뜨려 버렸읍니다. 순종의 원리를 따름으로써 이 젊은이는 명예롭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았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십 일간 성역을 베푸셨으며,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 : 8) 오늘날 우리는 그의 제자이며 그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의 부활에 대해서 그의 교회에 대해서 그의 예언자와 사도에 대해서 간증해야 합니다. 그 까닭은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성 1 : 2, 4)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신 후 미대륙에 나타나셨으며 그 백성에게 자신이 지상에 온 까닭을 말씀하셨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니삼 27 : 13) 그는 모범을 보여 주셨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서 3장 25절에서 이런 것을 읽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읍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지상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읍니다. 그분은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읍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내가 사람들 손에 달렸던 것같이 저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달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선악 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니삼 27 : 14) 이제 우리는 한 교회로서 온 세상에 앨마 2세가 말한 것처럼 말할 책임이 있읍니다. "만 백성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이 모두 거듭나야 하나니"(모사이야서 27 : 25) 그들은 복음 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니삼 27 : 19)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침례받고 성신을 받고 끝까지 충실해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이 사업은 여러분 자신의 사업이 아니라고 혹은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린 니파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요.(니파이일서 3 : 5~7 참조) 이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름을 주셨으며 그분이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응답한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요. "저는 나이 어린 자요, 말을 더디한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오니… 이에 주께서 에녹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나아가 행하라"(모세 6 : 31~32)

아르헨티나 멘도사의 칼로스 아구에로는 불란서 빠리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가도록 부름받았읍니다. 그는 자기 나라 밖으로 나가 본 적이 거의 없었읍니다. 그는 불어는 전혀 몰랐읍니다. 그러나 그는 니파이처럼 불평하지 않고 나갔읍니다. 불란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선교부장이 스페인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사실상 다른 선교사들 가운데 스페인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읍니다. 그들은 영어와 불어밖에 할 줄 몰랐읍니다. 아구에로 장로는 영어로 말할 줄 몰랐읍니다. 선교사 구역 대회나 가르침은 모두 영어로 행해지고 있었읍니다. 그 이외의 말씀은 모두 불어로 행해졌읍니다. 칼로스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울었으며 주님에게 간구하였고 선교부장과 동반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읍니다. 여러 달이 걸려 그는 불어와 영어를 배웠읍니다. 그는 명예롭게 선교사로 봉사했읍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살고 있는 그는 교회 봉사에 있어서 또 그의 전문 분야에서 영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식 대로 우리를 축복 하십니다. 애굽으로 팔려나간 젊은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요. 그는 여러 가지 꿈을 꾸었으며 그의 형들과 부모님들에게 그의 꿈에 대해서 말했읍니다. 그의 형들은 그의 꿈 때문에 그에게 화를 냈읍니다. 후에 그들은 그를 여행자에게 팔아 버렸읍니다. 애굽에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읍니다. 그는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 저항했으며 거짓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혔읍니다.(창세기 39장 참조) 그가 축복을 받았읍니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받고 있읍니다. 요셉은 바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으며 자기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했읍니다.(창세기 41~42장 참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영생, 즉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을 얻었읍니다.(교성 14 : 7)

우리도 계명을 지킨다면 영생을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명령받고 있읍니다. "온 세상에 나가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을 행사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생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교성 68 : 8~9)*

문장

데비 블리스 포덤

비행기에서 좌석에 앉으면서 내 옆에 앉은 젊은이의 양복에 브리감 영 대학교 문장이 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이름이 "신학 대학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평생 동안 여러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으나 극히 최근에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생애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과장된 그저 단지 훌륭한 교사에 불과했는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직접 알아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꼈으며, 시간을 낼 수가 있었다. 나는 연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진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령이 불과 두 달 전에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며 예수가 진실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증해 주었다.

곧 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그곳에 있는 어떤 목사가 한번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모범이었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았으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공허하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나에게 대하여 그분이 갖고 계시는 뜻에 대하여 더 배울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으며 그가 아마추어 골프 시합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골프에 대해서 또 그가 프로 골프 선수가 되려는 포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마침내 그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브리감 영 대학교에 훌륭한 골프 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닙니까? 아니면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기 때문에 다닙니까?" 그는 미소지으며 그들에게 정말로 훌륭한 골프 팀이 있기는 하지만 또 자신이 몰몬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몰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나에게 이야기 해 주십시요."라고 물었다. 그는 참을성있게 이 교회의 참된 이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설명해 주었다. 또 주님이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간증했다.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다. 나는 몰몬 일반 신도들이 가족의 전통 때문에 회원인지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인지 알고 싶었다. 곧 이 젊은이는 자기가 직접 온 영혼을 다해서 찾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무언가 상실된 것같이 보이는 몇 가지 개념, 적어도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상실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몇 가지 개념에 부닥친 적이 있었다. 그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나는 "당신은 안수에 의한 성령의 은사를 믿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나를 쳐다 보았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셨읍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성경에서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예, 우리는 정말로 그 은사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권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했다.

불행히도 이때 이미 비행기가 막 착륙하려 하고 있었으며 나는 아직 질문이 백 가지도 더 있었다.

그는 "만약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더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훌륭한 선교사 몇 사람이 실제로 나에게 왔으며 나는 곧 침례를 받았다. 이제 십 육년이 지났으며 나는 그 비행기에 탔던 그 젊은이와 또 그의 양복에 있었던 문장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구세주의 참된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

가정 주부인 데비 블리스 포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프로렌스 스테이크의 프로렌스 와드에서 살고 있다.